

北韓의 主體思想 :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變形

全 實 永

(서울大 師範大 教授)

<차례>	
I. 序論	2. 自主路線과 中蘇의 干涉
1. 研究目的	3. 自力更生과 對外依存
2. 研究方法	4. 自衛와 能力의 限界
II. 主體思想의 理論的 體系	V.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 問의 關係
1. 人間為主의 哲學의 原理	1. 辩證法의 唯物論과 主體思想
2. 自主性, 創造性 및 意識性 評價	2. 民族共產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III. 主體思想의 形成背景과 構成 要素	3. 主體思想의 獨創性 問題
1. 主體性確立과 權力闘爭	V. 結論

I. 序論

北韓에서 金日成이 抗日鬪爭期間에 創案했다고 主張하고 있는 主體思想은 變形된 北韓版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마르크스主義를 變形시켜 適用했고 中共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實情에 맞게 變則的으로 適用했듯이, 北韓에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더불어 스탈린主義 및 毛澤東思想까지 受容하여 北韓 나름의 統治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1955年末에 北韓에서 ‘主體’라는 말이 처음으로 主張되긴 했어도 ‘主體思想’이란 말은 體系的으로 宣傳하고 強調하기始作한 것은 1960年代末이 되어서였다. 即, 主體思想이 北韓社會에서 形成되는 데 10年以上的 세월이 경과했던 것이다.

北韓側의 主張에 의하면,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의 具體的 現實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며 모든 活動의 指導的 指針이라는 것이다. 1972年 1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次會議에서 採擇된 社會

主義憲法 第 4 條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明文化시켜 놓았다. 이 條文은 勞動黨規約 前文에 包含되어 있는 內容과도 同一하다.⁽¹⁾ 第 6 次黨大會가 있었던 1980年을 前後로 하여, 北韓은 主體思想을 活動의 指針으로 삼는다는 面서 進一步하여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부르짖고 있다.⁽²⁾

北韓憲法 第 4 條와 黨規約前文을 通해서 볼 수 있는 特色은 政府가 勞動黨의 主體思想을 活動의 指針으로 삼으며 黨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活動의 指針으로 삼는다고 規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政府 위에 黨이 있고 黨 위에 金日成 個人이 絶對的인 存在로 閤립한다는 事實을 明文化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表現을 使用하므로써 金日成을 獨創的인 理論家로서 浮刻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最近에 採擇된 中國共產黨 黨憲과 比較해 보아도, 北韓의 경우처럼 指導者의 思想이나 役割만을 強調하지는 않는다. 1982年 9月 6日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採擇된 黨憲總綱에 의하면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黨의 行動指針으로 삼는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辩證法의 唯物主義와 歷史的 唯物主義을 應用하여 資本主義社會의 發展法則을 分析하고 科學的인 社會主義理論을 定立하였다”고 부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人民日報, 1982. 9. 9; 國際問題調查研究所, 1982:1). 中共과 北韓의 또 다른 差異點은 中共의 黨憲이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中國에서 運用・發展된 것이고 實踐을 通하여 證明된 中國革命과 建設에 關한 正確한 理論原則과 經驗의 總括이며 中國共產黨의 集團智慧의 結晶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點이다. 即, 北韓의 경우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라고 明示한 데 比하여, 中共에서는 毛思想이 黨의 集團智慧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듯 北韓에서는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는 主體思想만을 強調하고 있으며, 또한

(1) 1970年 11月의 第 5 次黨大會에서 改正된 黨規約前文에 이미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는다”는 同一한 內容이 明示되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極東問題研究所, 1980:65)

(2) 1980年 10月의 第 6 次 勞動黨大會에서 改正된 黨規約前文은 黨의 最終目的이 온 社會의 主體思想화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는 規定을 삽입하고 있다(金南植・趙愛淑, 1982:22).

金日成 個人에게만 지나칠 程度로 모든 榮光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關한 言及이 中共보다 北韓에서 더욱 기괴되고 있는 것은 金日成 個人崇拜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金日成의 位置를 마르크스-레닌 못지 않는 偉大한 理論家로 묘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모든 分野에서 嚴格한 統制 및 감시가 따르는 北韓社會에서 主體思想과 金日成의 位置를 마음대로 宣揚시키거나 造作할 수 있지만, 對外的으로는 크게 共感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어느 限界에 봉착되기 마련이다. 金日成自身의 理論家로서의 資質도 問題가 되거나와 解放前부터 지금까지 그의 行蹟도 마르크스-레닌이나 毛澤東보다 훨씬 미흡하며, 共產國家들을 包含한 世界 여러 나라들의 主體的인 立場들을 考慮할 때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에 遜色이 없는 獨創的인 理論으로 宣傳하는 것은 說得力を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主體思想을 完全히 無視하고 外面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 現實情이다. 왜냐하면 主體思想이 北韓의 對內의인 統治理念으로만 提示되는 것이 아니라 韓半島 全體의 共產化를 為한 이데올로기로서 北韓의 對南政策에도 크게 利用되고 있으며 아울러 第3世界內에서의 北韓의 影響力을 增大시키고 韓國을 孤立화하기 為한 強力한 武器로서까지 使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1. 研究目的

解放以後부터 現在까지 무려 38年間 北韓社會를 長期的으로 執權하여 온 金日成은 그의 一人獨裁體制를 維持하며 翩固히 하기 為한 統治 또는 支配理念을 必要로 하는 바, 抗日鬪爭期에 金日성이 創案했다고 主張하는 主體思想이 바로 그의 權力を 合理化하고 北韓住民들은 動員하기 為한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統治이데올로기인 것이다. 統治이데올로기의 機能이란 統治者的 權力과 追求하는 目標들을 合理化해 줄 뿐만 아니라 政策目標와 推進方向을 示唆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도 金日성의 權力を 維持하여 줄 뿐 아니라 그가 追求하는 政策目標들까지도 合理化시켜 주며, 그러한 目標들을 어떻게 成就하여야 하는지도 示唆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과 對決狀態에 있는 韓國으로서는 痛드는 好든 間에 北韓의 行動指針이라

고하는 主體思想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注視하며 研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本研究의 目的은 (1) 優先的으로 黨의 唯一思想이라고 하는 金日成主體思想이 果然 무엇을 意味하는지를 밝히고, (2) 主體思想의 理論體系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構成要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3) 主體思想이 形成·發展하게 된 對內外的要因들이 어떤 것인지를 分析·檢討하고, 끝으로 (4)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間에는 어떠한 相異點들이 發見되고 있는지를 檢討·批判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北韓에서 어떻게 變形되어 適用되고 있는지를 紛明하는 데 있다.

機會있을 때마다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의 優秀性을 宣傳하고 있지만,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比較할 때 많은 理論上의 弱點을 지닌다. 主體思想은 確固한 世界觀에 의하여 理論으로 定立된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統治를 合理化하거나 弱少國으로서 周邊環境에 適應하지 않을 수 없는 北韓의 立場을 正當化하기 為한 實用的인 側面이 強한 統治思想이다.⁽³⁾ 強大國들은 主體를 強調할 必要도 없이 그들의 利益을 獨自의인 立場에서 追求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나 中共같은 國家들이 일찍부터 모스크바로부터 獨立된 自主路線을 밟아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그토록 強調하게 된 경위를 보면 對內의으로는 金日成의 權力獨占과 社會主義建設을 為한 住民動員과 關聯이 있으며, 對外의으로는 中蘇紛爭 및 對南政策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를 애매하고 形式에 가깝게 取扱하면서, ‘朝鮮의 具體的 現實에 맞게’라는 말만을 强調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에 따라 움직였기보다는 주어진 與件에 따라 行動하고 이들을 後에 理論화하는 作業을 展開하였다. 마르크스-레닌主義와 相衝될 때에는 朝鮮의 具體的인 現實에 맞게 適用하였다는 便利한 口實을 내세우거나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들어 否認하거나 회피해 버리는 式으로 主體思想을 험들게 理論化하여 왔다.

實踐的인 統治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이라는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와는 어떠한 差異가 있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다른 面이 있을 경

(3) 마르크스主義를 純粹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主體思想은 現實의 要求를勘案한 實踐的인 이데올로기인 셈이다(Schurman, 1968:24-25).

우 哲學的 根據는 무엇이고, 主體思想의 形成·發展은 果然 獨創의으로 이루 어졌는가 하는 點들을 檢討함으로써 우리는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北韓에서 어떻게 變形되어 適用되고 있는지를 紛明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主體思想이創造的 思想體系인가 아니면 蘇·中의 理論이나 經驗이 마르크스主義에 첨가된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은 必要한 同時에 紛美로운 일이기도 한 것이다.

2. 研究方法

北韓社會에서 黨의 唯一思想으로 規定되어 있는 主體思想을 研究하기 為해서는 長期統治를 해 온 金日成이 어떻게 權力を 掌握하였으며 住民들을 支配하여 왔는가 하는 點들을 살펴보고, 그가 周邊環境으로부터 어떠한 壓力에直面하고 어떻게 適應하여 왔는가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國內基盤이 없이 蘇聯占領軍의 選擇決定에 의하여 權座에 오르게 된 金日成의 過去는 그리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國内外에 基盤을 가지고 있던 政敵들을 除去해야 했으며, 中·蘇兩國과의 원만한 關係維持를 為해 苦憊하지 않을 수 없었고, 敵對的 競爭相對인 韓國과의 關係에서 發生되는 問題들을 解決하여야 했다. 그가 逆境에서 살아남고 一人獨裁體制를 葉固히 하기 為해서는 그의 行爲나 政策들을 合理化할 實踐的인 統治理論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 바 그러한 必要性을 充足시켜 줄 수 있는 統治이데올로기로서 登場한 것이 主體思想이다.

主體思想은 처음부터 體系가 잡힌 理論으로 出現했던 것은 아니고, 現實의 必要에 따라 金日成이 主張했거나 北韓에서 行해진 일들을 整理하거나 合理化하던 것이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思想體系로서의 獨自의 位置를 主張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歷史를 理解할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國家에서는 黨史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歷史를 알 수 있으므로 北韓史를 알기 위해서는 勞動黨史를 보면 된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勞動黨이 金日成一人의 手中に 完全히 掌握되어 있으므로, 黨史는 金日成中心의 歷史가 되며 金의 意思나 指示를 순종적으로 관철하여 온 종속적인 歷史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을 理解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比較하려면, 金日成의 言行이나 그가 強調하는 對內外政策들을 中心으로 把握해야 될 것이며 金日成의 言行들이 記載된 文獻들을 為主로 研究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研究方法은 主體思想의 形成·發展이 金日成體制의 維持 및 生存을 爲한 環境에의 適應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接近하는 것이다. 北韓政權의樹立은 처음부터 主體思想이라는 統治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計劃과 指示에 따라 進行되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스탈린主義를 基本理念으로 삼아 出現했던 것이다. 政權樹立 直後에는 蘇聯의 影響力이 絶對的이었으나 中共軍의 韓國戰參戰으로 말미암아 北韓에서의 蘇聯의 位置가 相對的으로 弱化되었다. 1960年代로 접어들면서 中蘇紛爭이 深化되고 그 餘波로 北韓의 立場이 難處해지게 되자 金日成은 防禦의 으로 自主路線을 強調하게 되었다. 1970年代에 와서는 國際社會의 多元化現象과 各國의 國益追求 傾向이 더욱 현저해지자, 金日成은 自己의 行動이나 政策들을 ‘主體’라는 이름으로 正當화하고 主體思想의 理論體系確立을 爲한 作業을 強化했다. 1980년의 第6次 黨大會를 前後로 하여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強調함으로써, 社會의 主體思想化가 마치 窮極의인 理想社會目標에의 도달을 意味하는 것처럼 宣傳하고 있음을 본다. 特히 留意할 것은 黨規의 前文에서 黨의 最終目的이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建設이라고 明示함으로써,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完全한 共產主義社會를 同格의 位置로 올려놓았다는 點이다. 思想體系로서 애매하고 確立되어 있지도 않는 主體思想을 이토록 승화시켜 놓은 것은 폐쇄적인 北韓社會에서 金日成 個人崇拜가 極度에 이르고 있음을 端的으로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要約하면, 主體思想을 研究하기 爲한 方法으로서는 金日成의 言行이 記錄된 北韓側 文獻을 中心으로 把握하도록 하되 다음 몇 가지 點들을 研究의 關心 및 檢討對象으로 定하고 出發하였다. 그 事項들은 : (1) 主體思想은 理想의인 目標를 追求하는 明確한 理論體系가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과 ; (2) 主體思想은 對內의 으로 金日成 獨裁體制를 維持하고 經濟建設을 強行시키기 위한 統治이데올로기로서의 機能을 가지며 ; (3) 對外의 으로는 中蘇로부터의 內政干涉排除와 韓國 및 第3世界에 對한 效果의in 武器로 使用할 수 있으며 ; (4) 住民들을 끊임없이 勵員하기 爲해서는 民族感情에 呼訴할 必要가 있고 ; (5) 金日成의 存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主體思想의 獨創性을 主張하여 그를 偉大한 理論家로 造成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이다. 즉 主體思想이 理想의in 未來像의 實現을 爲한 것이 아니라, 現世의 問題들을 解決하기 爲한 實用의in 이데올로기라는 觀點에서 把握하고 分析하

려고 했다.

上記의 事項들을 檢討하기 為한 順序로서 主體思想의 理論的 體系와 構成要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主體思想이 果然 어떠한 世界觀에서 出發하여 어떤 社會發展法則들을 提示하고, 어떠한 要素들이 思想體系를 構成하고 있는지를 檢討함으로써 主體思想을 理解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II. 主體思想의 理論的 體系

主體思想의 理論的 體系와 構成要素들을 理解하기 為해서는 北韓에서 크게 宣傳하는 人間爲主의 哲學이 무엇이며 自主性과 創造性이 왜 強調되고 思想意識의 役割은 어째서 重視되고 있는지를 優先 把握하여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北韓側 主張이 妥當한지 아닌지를 批判하는 것이 順序일 것 같다.

1. 人間爲主의 哲學的 原理

北韓共產主義者들은 主體思想이 사람 中心의 새로운 哲學思想이라고 말한다. 그들 主張에 따르면, “사람은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哲學的 原理에 基礎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主人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服務케 하는 것으로서,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는 것은 사람을 為하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은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고 自己運命을 開拓하는 데 사람이 決定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解說한다. 한마디로,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란 世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地位와 役割을 밝힌 人間爲主의 哲學的 原理라는 것이다(金正日, 1982a:9; 金南植, 1977:74-75).

金日成이 創始했으며 眞理라고 主張하는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는 여러 問題點들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이라는 抽象的인 概念을 使用하고 있으며, 人間爲主의 새로운 哲學的 原理를 發見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는 點이다. 黃性模教授가 指摘하였듯이 사람은 모든 哲學思想의 始發點이 되는 것인데 새롭게 이를 強調하는 것도 理解하기 어렵고, 마르크스처럼 人間을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階級別로 區分하여 規定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모든 階層의 人間을 包括的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勤勞人民大衆’이라는 모호한 概念을 ‘사람’이라는 用語와 함께 使用하고 있다. 歷史的・社

會的으로 規定되지 않은 概念들을 使用하므로써 人間에 對한 認識論自體가 問題를 일으키는데도 不拘하고, 그에 對한 適切한 解明도 없이 ‘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한다’는 原理를 強調하고 있음은 哲學的 原理로서의 說得力이 없다는 것이다.⁽⁴⁾

둘째, 사람이 自然과 社會의 主人이며 自己運命을 開拓하는 데 決定的 役割을 한다는 것이 어제서 金日成의 새로운 眞理發見이 될 수 있느냐 하는 反問이 생긴다. 마르크스는 이미 “世界史란 人間이 그 勞動力에 의하여 創造한 것에 不過하며 人間에게 奉仕할 수 있는 自然의 出現일 뿐이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Marx, 1964:145, 재인용, 金甲喆, 1977:173-174). 앵겔스 또한 “人間이 社會의 發展法則을 理解하고 그 움직임이나 效果를 把握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意志에 맞도록 努力如何에 따라 變更할 수 있으며, 人間의 손에 의하여 自然과 社會는 惡魔같은 主人에서 忠直한 종으로 變해지는 것이다”라고 自然과 社會의 主人이 되는 과정을 밝혔었다(Rossingnol and Edward, 1968:122, 재인용, 金甲喆, 1977:174). 이들을 通해 볼 때 마르크스나 앵겔스도 人間中心의 面을 完全히 排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金日성이 獨創의 人間中心의 哲學的 原理를 發見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 크게 寄與하였다는 主張은 허위하거나 誇張된 것이다. 中共의 毛澤東만 보아도 金日成 以上으로 人間의 精神力이나 意志力を 強調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⁵⁾ 그 外에도, 歷史를 人間意志의 產物로 보거나 自然과의 闘爭을 通한 人類의 發展史로 보는 見解들도 共感을 받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偉大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他人들의 理論이나 公적을 감추고 오로지 自己의 아이디어로만 發表하고 있는 것은 金日成偶像化와 北韓社會의 閉鎖性을 端的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며, 아울러 理論化 作業의 貧弱함을 露出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黃性模(1980:91); 北韓側 說明에 의하면, “人間은 가장 발전된 物質的 存在이며 物質世界發展의 特出한 產物로서, 客觀世界에 順應하지 않고 세계를 인식하고 变換하여 自己에게 복무하도록 만듬으로써 生存하고 發展한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9-10). 그러나 이는 極히一般的이고 常識의 說明으로서, 人間의 自然과의 鬭爭이나 萬物의 靈長임은 누구나 아는 事實이다.

(5) 毛澤東의 ‘山을’ 除去한 우매한老人’ 이야기는 人間이 강인한 精神力이나 意志로써 自己의 運命을 개척할 수 있다는 寓話로서, 金日成의 人間決定論 出現 以前에 毛澤東에 의하여 強調되었음을 보여주는 實例가 된다.

2. 自主性, 創造性 및 意識性 評價

主體思想에서는 사람이 自主性과 創造性 및 意識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임을 強調한다. 즉, 사람이 世界의 主人으로서 特別한 地位와 役割을 차지하는 것은 人間의 本質의 特性이라 할 수 있는 自主性과 創造性 및 意識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特性이 社會歷史의 으로 形成・發展되는 人間의 社會的 屬性이며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強調한다(金正日, 1982a:10).

人間을 다른 動物들과 比較해 가면서 社會的인 存在인 人間만이 이들 세 가지 屬性을 지닌다고 理論의으로 說明하려드는 北韓의 主張은 구차하고 어색하기만 하다. 또한 人間이 自己運命을 決定할 수 있는 自主의이고 創造의이며 意識의 社會的 存在라면,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에 비추어 본 소외된 人間이나 레닌이 말하는 엘리뜨政黨의 必要性과는 矛盾되는 것이다.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眞理를 조선의 現實에 맞게 適用하였다는 主張만으로는 說得力이 不足하다. 그리고, 金日成이 主張하는 自主性이니 創造性이니 하는 人間의 屬性이 北韓을 包含한 社會主義社會에서 보다는 資本主義社會에서 더욱 尊重받고, 그로 因해 社會와 個人 모두가 發展하는 것은 說明을 하지 않고 있다. 劃一의이고, 統制가 嚴格하며, 集團主義를 强要하는 北韓社會에서 自主性과 創造性 및 意識性을 強調한다는 事實自體가 事理에 맞지 않으며 問題點이 있음을 露呈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實際로 北韓指導層이 얼마만큼의 自主性과 創造性 및 意識性을 住民들에게 권장하거나 許容하고 있는가에 對해 疑問點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 自主性

北韓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自主性은 우리가 생각하는 自主性의 概念과 다르다. 그들은 個人的 自主性을 無視하고, 集團의 社會的 存在로서의 自主性을 論하며 ‘自主性이 生命’이라고 할 때 그것은 ‘社會政治的 生命’을 意味한다고 主張한다. 그들이 自主性을 말할 때는 모든 成員들의 自主性이 아니라 階級의 次元에서 소위 ‘근로人民大眾’ 또는 ‘人民大衆’ 만의 自主性으로 制限한다. 人類歷史를 이야기할 때 歷史의 主體는 ‘勤勞人民大眾’이며 ‘反動階級’은 歷史의 主體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歷史의 主體役割을 담당하기 為해서는 반드시 ‘指導’와 人民大衆이 結合되어야 한다고 強調

한다. 그런데 興味로운 것은 指導問題가 다른아닌 人民大衆에 對한 黨과 首領의 領導로서, “人民大衆은 黨과 首領의 을바른 領導를 받아야만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革命鬪爭을 벌려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를 成果的으로 建設할 수 있으며 그를 옳게 運營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는 點이다(金正日, 1982a:17-19). 人民大衆의 自主性 云云하면 서 結局은 金日成個人崇拜로 歸着되고 마는 것을 볼 때, 환멸과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人間이 自主的인 生活을 營爲하기 위해서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고 人間을 改造해야 된다는 主張이 結局은 自主性을 爲한 鬪爭이 아니라 金日成의 指示와 命令에 순종하는 被動的이고 依存的인 非自主的 人間이 되라는 意味 밖에는 없는 것이다. 金日成의 指示만 따르는 人間이 어떻게 自主的이 되겠는지 그 對答은 明確한 것이며, 이것은 마르크스가 豫見하던 社會發展方向이 아닌 엉뚱한 方向轉換이라 할 수 있다.

나. 創造性

主體思想에서 自主性 다음으로 強調하는 것은 創造性이다. 北韓側 見解에 의하면,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고 變革하는 社會·歷史的 運動은 創造的 運動이며 自然과 社會는 사람의 創造的 活動對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創造者는 人民大衆 뿐이라고 規定하고, 創造의 過程은 곧 階級鬪爭過程이라고 斷定하면서 鬪爭을 떠나서는 創造를 생각할 수 없다고 制限한다 (金正日, 1982a: 27-28). 마르크스의 階級鬪爭史를 創造的인 鬪爭史로 바꿔놓은 듯한 主張을 마르크스主義에서는 어떻게 解釋될 것인가? 主體思想에서는 “創造的 立場이란 教條的 態度를 버리고 獨自的인 思考로 現實을 生動하게 具體的으로 把握하며 모든 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方法이라”고 說明한다(金正日, 1982a:30). 그렇다면, 아무리 마르크스主義 理論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修正主義가 아니라 創造的 立場을 취했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런 式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를 자칭하는 金日成은 變形되는 것은 ‘創造的’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自身의 修正主義的인 立場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 意識性

主體思想은 自主性 및 創造性과 함께 思想意識性을 強調한다. 思想意識이란 사람들의 모든 行動을 規制하고 調節하는 人間의 高級屬性으로서, 思想意識의 規制와 調節을 떠나서는 自主的이고 創造的인 活動을 생각할 수 없다

는 것이다(金正日, 1982a:31-32). 思想意識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自主性과 創造性을 생각할 수 없다는 아주 獨創적인 規定이 되는 것이다. 世界를 認識하고 積極的으로 改造하는 人間活動은 意識性的 발현이며, 變革을 위한 人間의 役割인즉 思想意識의 役割이라는 것이다. 이는 人間이 어느 特定한 이데올로기에 구애됨이 없이, 꾸준히 보다 바람직한 生活 및 그를 위한 環境造成을 위해 努力해 왔다는 것을 否認하는 것이 된다.

思想意識에서 가장 基本으로 되는 重要한 것은 階級鬭爭에 對한 사람들의 態度와 立場을 規制하는 階級意識이라고 強調하고 大衆이 思想의으로 각성되지 못한다면 革命鬭爭도 할 수 없고 自然과 社會를 自己의 要求에 맞게 改造할 수도 없다고 경고한다(金正日, 1982a:33). 여기서 우리는 主體思想이라는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볼 수 있듯이 鉅烈적인 階級鬭爭意識을 고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이 意識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것은 무엇보다 體制維持 및 經濟發展을 爲해 끊임없이 階級의으로 教育시키며 住民들을 動員시키고 나아가서는 韓半島全體를 共產化시키기 위해 共產主義思想으로 武裝시키려는 데 底意가 있다고 判斷된다. 우리가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있는 主觀과 公지를 가지고 每事에 임하는 主體意識과 北韓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主體意識과는 현격한 差異가 있음을 엿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意識이라는 것은 物質的으로 不足하고 與件이 不利해도 思想意識이 높으면 革命鬭爭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지극히 선동적이고 戰鬪的이며 階級的인 政治意識을 말한다. 意識性을 論함에 있어, 레닌主義에서 찾아볼 수 있는 意識化라든지 革命家와 大衆의 結合을 強調하고 있음을 쉽게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思想의 要因이 決定的이라느니 物質的 條件이 마련되었다 해도 革命이 져절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辨證法의인 唯物論과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볼 때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人間의 努力과 精神力이 機械나 技術에 比해 優位를 차지한다는 毛澤東思想에 가까운 것이다(Pye, 1978:200-201). 毛澤東이 人間의 動機 또는 決意를 重視한 것은 後進의in 中國社會를 社會主義社會로 改造하기 爲해서 集中的인 勞動力과 강인한 精神力의 動員을 必要로 했던 것인데, 金日成이 레닌의 ‘政治意識化’와 毛澤東의 ‘人間精神力’을 結合해서 自己의 獨創的인 理論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중심이라는 主體思想의 哲學的 原理와 主體思想에서 요란하게 強調하고 있는 세 가지 人間屬性——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을 檢討하고 評價하여 보았다. 主體思想은 理論으로 定立되어 있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理論을 빌리거나 억지로 살을 붙여 理論化를 試圖한 印象을 避할 수 없고, 金日成個人崇拜로까지 연결시키는 等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은 主體思想이 어려한 過程을 거쳐서 形成되었으며 그 構成要素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를 檢討함으로써, 果然 主體思想이라는 것이 人類의 理想鄉을 實現하기 爲한 目標文化(goal culture) 要素로 構成된 思想體系인지 單純히 統治를 容易하게 하기 爲한 實踐이에 올로 기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主體思想의 形成背景과 構成要素

오늘날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을 朝鮮의 具體的 現實에 맞도록 創造的으로 適用된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부르면서 金日成을 偉大한 共產主義理論家라고 부르고 있다. 主體라는 概念의 연원이 金日成으로부터 抗日鬪爭時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主體思想의 創案으로 共產主義活動의 어려운 問題들을 解決해 준 것처럼 過大한 宣傳을 하고 있다. 實際로는, 主體思想이 出現하고 發展된 過程을 調査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이 스탈린死後 危機를 맞게 되는 1950年代 中盤에 金日成의 黨內 指導權掌握을 爲한 權力鬪爭過程에서 ‘思想에서의 主體確立’ 問題가 題起되고；戰後의 어려운 經濟事情을 克服·發展시키기 위해 中共의 影響을 받은 經濟에서의 自立이 強調되었으며；쿠바事態 以後 蘇聯의 行爲에 不安을 느껴 國防에서의 自衛를 부르짖고；中蘇紛爭의 深化로 北韓의 立場이 점점 힘들게 되자, 政治(外交)에서의 自主를 宣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 主體性確立과 權力鬪爭

最近에 와서 지나친 金日成偶像化作業 때문에 主體思想의 源源을 金日成의 14세 어린 時節인 1926年 또는 1930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北韓에서 展開되고 있지만, 主體라는 말이 公式的으로 出現한 것은 1955年 12月 28日 金日성이 黨宣傳煽動일군들 앞에서 행한 「思想事業

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對하여」라는 演說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다. 北韓側 發表에 의하면, 金日成은 14세때인 1926年 10月 17日 「打倒帝國主義同盟(「ㅌㄷ」)」을 結成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主體型의 黨創建의 出發點이 되었고 「ㅌㄷ」가 내세운 自主性의 原則이 黨建設과 黨活動의 原則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1930年 7月初 金日성이 카룬에서 主體思想을 指導思想으로 하는 첫 黨組織을 갖추었다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宣傳한다(金正日, 1982b, 責任, 內外通信, 1982: 黨1B-2B). 이러한 主張은 金日成의 抗日鬪爭 및 革命理論家로서의 경력을 極大化하기 爲한 金日成崇拜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55年 12月 28일의 主體에 關한 金日成演說이 나오게 된 背景을 살펴볼必要가 있다. 國內의으로는 政敵인 朴憲永에 對한 最高裁判所 特別裁判이 12月 15日에 있었는데, 判決에서는 “被告 朴憲永이 朝鮮의 自主獨立을 反對하고 共和國의 人民民主權을 反對할 目的으로 祖國에 반역하고 美帝國主義에 복무한 간첩行爲와 反革命的 모략 宣傳煽動行爲 및 리승엽등 反革命도당의 武裝暴動음모의 實現을 비호보장하여준 行爲가…死刑에 處하고 全部의 財產을 몰수한다”라는宣告를 내렸다(로동신문, 1955. 12. 18:2). 朴憲永을 美帝의 간첩으로 몰아 死刑判決을 내린 金日成은 政敵除去에 對한自己立場변호를 必要로 했으며, 스탈린死後 小斯탈린格인自身에 對한 批判을 防止하여야 될 難處한 立場에 있었다. 金日成은 南勞黨勢力を 休戰과 同時に 除去하는 데 일단 成功했지만, 中共軍이 아직도 駐屯하고 있는 現實에서 延安派의 力勢을 完全히 無視할 수도 없었고, 蘇聯派의 挑戰에도 神經을 써야 할 形便에 있었다. 이러한 挑戰은 國際的인 情勢變化에서 超來된 것이기도 했다. 1955年 5月末 흐루시초프와 불가닌은 유고를 訪問하여 스탈린時代의 不和를 清算하고 兩國關係를 改善하였다. 유고 訪問時 흐루시초프는 蘇聯의 見解를 유고共產黨에게 强要했던 것은 오류를 犯한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해서 티토를 파시스트나 帝國主義者の 앞잡이로 취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公開的으로 認定하였다(Lowenthal, 1964:40). 이러한 共產主義運動에서의 새로운 추세가 스탈린에 추종하고 티토 批判에 同調했던 金日成을 難處하게 만들었음을 自明한 일이었다.

이러한 國内外狀況에서 金日成은 思想事業에서의 主體確立을 強調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蘇聯共產黨史나 中國革命史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

의 보편적 眞理를 배우는 것은 自身의 革命을 올바르게 遂行하기 위함인데 主體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로 흐르고 革命에 害를 끼친다고 批判한 다음 韓國歷史나 地理 및 風習을 알아야 朝鮮에서 革命을 이룩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Kim, 1977a:136). 同演說文에서 金日成이 特히 朴昌玉을 指摘하여 攻擊했다는 事實은 注目할 만하다. 朴昌玉은 蘇聯에서 出生하고 教育을 받은 知的인 人物로서 北韓에서의 共產政權樹立에 寄與했다. 1950年에는 黨中央委의 宣傳 및 廉動部部長이 되었고 蘇聯派의 指導級理論家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관한 論文들을 자주 썼었다(Scalapino and Lee, 1972:477-478). 이러한 朴昌玉을 바로 黨宣傳廉動일군들 앞에서 朝鮮文學運動史를 否定하고 文化的 遺產을 研究하지 않았다고 金日成이 批判한 것은 朴의 實力에 시기와 不安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영빈이 蘇聯에서 歸國하자마자 “蘇聯이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으니, 우리도 反美帝을 간을 거두자”라는 發言을 했다고 非難하면서, 金日成은 “우리의 美帝國主義者들에 對한 戰爭이 蘇聯의 緊張緩和努力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공격했는데, 이는 흐루시초프路線에 同調하는 者들에 對한 警告였다(Kim, 1977a:141). 金日成은 또한 戰爭中에 軍內의 政治事業 方式을 둘러싸고 許哥而와 朴一禹 等이 蘇聯式이 좋으냐 中國式이 좋으냐 하면서 論爭을 벌려 黨紀綱만 弱化시켰다고 非難하고 좋은 結果가 重要한 것이며 스스로의 方式을 찾아낼 時點이라고 말했다(Kim, 1977a:143).

赤軍의 進駐에 힘입어 權座에 올랐고 蘇聯의 軍・經援助로 韓國戰을 치뤘고 中共軍의 介入으로 政權이 救援을 받았으며 中共軍이 殘留하고 있는 狀況에서, 어떻게 金日成이 이러한 發言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우기 戰後復舊事業을 爲해서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莫大한 援助를 받고 그러한 發言을 했다는 것은 關心事が 아닐 수 없다. 金日成은 스탈린의 死亡後 그의 地位維持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南勞黨系를 숙청한 뒤에도 延安派와 蘇聯派의 挑戰을 無視할 수 없었고, 흐루시초프의 登場은 小斯탈린格인 金日成을 不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黨內權力鬭爭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고 自身의 立場을 強化할 수 있는 方案이 必要했던 것이다. 梁好民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1953年 스탈린의 死亡과 韓國休戰을 契機로 露呈된 國內派, 延安派, 蘇聯派와의 치열한 黨內權力鬭爭에서 自己의 黨指導權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上の 武器로서 出現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批判에서 축발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指導權鬭爭으로 發展된 中·蘇紛爭에서 北韓의 獨自的인 政治路線으로 具體化되고 體系化되면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定立된 것이므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스탈린以後의 共產主義運動의 展開過程과 그것이 北韓에 미친 충격과의 關聯에서만 正確히 把握될 수 있는 것이라고 分析한다(梁好民, 1979:297). 들이켜 보건대, 金日成은 스탈린死後 蘇聯內의 政治發展에 고무되어 그에게 挑戰할지도 모르는 政敵들에 對한 對備를 해야 했으며, 他一面으로는 모스크바의 統制가 弱化된 것을 利用할 機會를 얻었던 것이다. 그가 主體確立을 강조하게 된 것은 ‘主體’가 政敵들에게는 守勢로 몰리지 않도록 逆攻勢를 取할 수 있는 槍이 될 수 있고 外部의 干涉에 對해서는 防禦의 役割을 할 수 있는 攻守兩面으로 使用할 수 있는 機能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단 效果가 나타나자 이를 더욱 더 使用하고 體系의in 理論으로 發展시킨 것으로 보인다.

北韓에서 思想에서의 主體를 크게 強調하는 理由는 革命이나 建設이 사람들의 意識的인 活動인 만큼 思想에서 主體를 세워야 政治, 經濟, 國防 等 모든 分野에서 主體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思想에서 主體를 세운다는 것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이라는 自覺을 가지고 自己나라 革命을 中心에 놓고 모든 것을 思考하고 實踐하며 모든 問題를 自己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觀點과 態度를 가지는 것이라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力說한다. 그들은 思想에서 主體를 세우기 위해서는, (1) 勞動階級의 革命思想과 自己黨의 路線과 政策으로 武裝하여야 하며, (2) 自己의 것에 精通하여야 하고, (3) 높은 民族的 自尊心과 革命的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4) 民民族文化를 發展시키고 大衆의 文化技術水準을 높여야 하고, (5) 事大主義를 비롯한 온갖 낡은 思想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金正日, 1982a:38-42).

民族主義가 強力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오늘날 自己中心으로 思考하고 實踐하며 自己의 知慧와 힘으로 問題를 풀어나가는 觀點과 態度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論理上 큰 결함을 發見할 수가 없다. 그러나, 問題는 金日成의 言行에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1945年으로부터 스탈린의 死亡時까지 그는 充實한 스탈린主義者였다. 오히려 티토는 主體意識을 가지고 스탈린의 威脅에 屈함이 없이 共產世界에서 홀로 孤立되었으면서도 自己 힘으로 自己 問題를 解決해 나갔었다. 그에 比하면 金日成은 티토에 對한 스탈린의 攻擊에 同調하지 않았던가? 國內의 政敵들을 批判하는 데도 金日成은 自己의

행적은 뒤로 감추고 朴昌玉 等이 主體意識이 缺如되어 黨에 害를 끼쳤다고 紹譚했었다. 金日成自身이 스탈린의 도움으로 權座에 오르고 그의 指示대로 움직인 것은 편찮고, 그의 政敵들인 朴憲永, 朴昌玉, 崔昌益, 朴一禹, 許哥而 等은 모두 主體意識을 喪失했었던 말인가? 金日成은 이처럼 自身의 行態는 모두 올바르고 남들의 行態는 主體性을 갖지 못했다는 二重基準(double standards)을 適用하였던 것이다. 結局 金日成에 위협이 되거나 反對하는 사람들은 主體意識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 다른 關心事는 自己 것에 精通하고 民族的 自尊心을 지니며, 事大主義思想을 버리라는 것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立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民族主義感情의 색채가짙은 金日成의 主張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果然 調和를 이룰 수 있겠는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물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自己네들 路線이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原則에 배치되지 않으며 民族共產主義가 아니라고 自己路線을 否認하였지만 自民族中心으로 생각하게 되면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소홀하거나 修正主義路線이 되고 마는 것이다. 金日성이 티토路線을 修正主義라고 批判했지만, 自身도 같은 立場을 取하면서 自己는 修正主義者가 아니라고 否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北韓의 憲法, 法令, 制度, 政治理論 等이 蘇聯 또는 中共의 것을 많이 모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심지어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라는 것도 自己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님을 金日成自身이 告白하고 말았다. 每日新聞記者들이 제기한 質問에 答하는 과정에서 金日成은 “主體思想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發見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레닌主義者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思想을 特別히 強調하였을 뿐입니다”라고 不注意하게(?) 실토를 하고 만 일도 있다(근로자, 1972. 10:2, 제인용, 梁好民, 1979:343). 北韓의 宣傳機關들이 그처럼 大大的으로 金日成의 獨創的 共產主義理論이라고 추켜세우는 主體思想도 結局은 남의 「아이디어」들을 受容하여 만들어 낸 것임이 金日成本人에 의하여 解明된 것은 흥미로운 事實이다.

2. 自主路線과 中蘇의 干涉

이 世上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政治的인 自主性을 維持하려고 努力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強大國 틈에 끼여 있는 北韓도例外는 아니다. 蘇聯의 後援으로 政權이樹立되고 蘇聯의 도움으로 韓國戰을 始作하였으며, 中共의 適時救援으로 畏縮을 면할 수 있었고, 中·蘇의 經濟援助로 戰後復舊事業을 推進시킬 수 있었던 北韓으로서는 中·蘇로부터의 影響力を 처음부터 피할 길이 없었다.

1956年 8月 30日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의 自身에 對한 批判과 뒤따른 中·蘇의 介入으로 政治的 自主性의 必要性을 절감했던 金日成은, 1957年 12月 5日 모스크바會議에 參加한 黨 및 政府의 事業에 關하여 中央委 全體會議에서 진술한 報告에서 政治(內政)에서의 自主를 強調하였다. 이는 스탈린格下運動으로 因하여 超來된 蘇聯의 對內外政策變化와, 폴란드 및 청가리 事態를 包含한 東歐內의 變化 및 對蘇挑戰, 이탈리아 共產黨의 獨自의인 姿勢, 그리고 無視못할 中共의 共產圈內 發言權伸張 等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多元化에 고무된 金日成이 黨內指導權의 確立을 為하여 內政과 黨政策의 自主性을 強調하게 되었던 것으로 分析할 수 있다. 共產主義運動의 多元화와 모스크바宣言은 그에게 自主性을 主張할 좋은 機會를 提供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側 說明에 의하면 思想에서의 主體도 무엇보다 政治에서의 自主에서 表現되며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도 政治에서의 自主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한다. 그들이 主張하는 政治에서의 自主性 堅持는 民族的 獨立과 自主權을 固守하며, 自己人民의 利益을 옹호하고, 自己人民의 힘에 의거하는 政治를 實施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어떤 民族이든 政治的 自主性을 憲지하여야만 獨立과 自由를 保障할 수 있으며 幸福과 繁榮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42-43). 上記의 內容自體는 크게 탓할 것이 못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國家든 自國의 利益을 優先的으로 追求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그를 為해 政治的 自主性이 先次의으로 要求되는 것은 지극히 常識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國力에 限界가 있거나 커다란 威脅이 存在할 때 他國에 의존하거나 相互協力關係를 맺어 問題解決에 임하는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라도 政治的 自主性을 維持하려고 努力하는 것은 萬國의 共通의 現象인 것이다.

政治에서 自主性을 保障하기 為해서는 다음 事項들이 要求된다고 主體思想에서 強調한다: (1) 人民政權을 세워야 하며; (2) 主體의인 政治的 力量

을 갖춰야 하고 ; (3) 自己의 指導思想을 가지고 自身의 決心에 따라 路線과 政策을 獨自的으로 決定하고 관철하여야 하며 ; (4) 對外關係에서 完全한 自主權과 平等權을 行使하여야 한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43-44). 第 1 項의 ‘人民政權’을 樹立해야만 政治的 自主性을 保障받을 수 있다는 것은 憶說에 不過하다. 萬一 그렇다면 資本主義國家들의 政治的 自主性은 어떻게 說明할 것이며, 從屬의인 社會主義國家들의 現實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問題에 봉착한다. 美國이나 英國같은 國家들은 人民府權이 樹立되지 않아도 政治의인 自主性을 향유하고 있는 反面에, 人民政權이 樹立되어 있다는 大部分의 東歐國家들이나, 쿠바, 베트남等의 社會主義國家들은 蘇聯의 影響力을 크게 받고 있는 現實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金日成이 어째서 自己의 獨自路線이나 對外關係에서 完全한 自主權 및 平等權을 主張하게 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이는 黨內의 權力鬭爭과도 聯關이 없는 것은 아니나, 더 큰理由는 中·蘇紛爭의 深化가 北韓의 立場을 難處하게 만든 데 基因한다. 韓·美兩國과 對決狀態에 있는 北韓으로서는 中·蘇兩國과의 友好關係維持 및 그들로부터의 支援을 必要로 해 왔다. 그러면 것이 中·蘇紛爭으로 말미암아 中·蘇兩國 모두와의 友好的인 關係維持가 차츰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으로 因해 1956年 8月에 黨內에서 그에 對한 公開的인 挑戰까지 감수해야 했던 金日成은 中·蘇關係의 惡化와 더불어 蘇聯의 對外政策에 不滿을 품게 되었으며 쿠바 事態를 계기로 中共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흐루시초프는 報復으로 北韓에 對해 軍·經援助의 中斷 等 심한 壓力を 가했다. 흐루시초프가 1964年 10月 權座에서 축출되자 對蘇關係惡化로 고통을 받던 北韓과 和解를 摸索하던 소련과의 關係는 改善했으나, 이번에는 中共과의 關係가 소원해지기始作했다. 이렇듯 中·蘇의 틈에서 試鍊을 겪어야만 했던 北韓은 1966年 8月 12日 「自主性을 옹호하자」라는 長文의 社說을 路동신문에 揭載하여 北韓의 自主的 立場을 對外的으로 強力히 表明하였다.⁽⁶⁾

時期的으로 볼 때, 中共에서는 毛澤東主導下의 文化革命이 한창 展開中에 있었고 蘇聯에서는 브레즈네프 體制가 처음으로 第23次 黨大會를 치른 지 5個月 가량이 경과한 後였으며, 越南戰은 한창 热氣를 더해가고 있을 때였다. 中共의 第8期 第11次 黨中共委員會 全員會議는 1966年 8月 8日 文化革命에

(6) 社說原文은 『北韓外交論』附錄, pp. 665-690 참조.

關한 16個項目의 決定을 採擇하였다. 이어서 會期終日인 8月 12일에는 聲明書를 통해 中共의 이데올로기的인 立場을 마르크스-레닌主義路線이라고 主張하면서, “帝國主義에 反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現代修正主義를 反對하여야 하며, 마르크스-레닌主義와 現代修正主義間의 鬥爭에 中道路線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立場을 表明하였다. 이어서 同聲明書는 蘇聯을 中心으로 하는 現代修正主義集團들과는 明確한 分界線이 그어져야 하며, 그들의 真面目을 폭로하여야 하고, 그들과 統一行動을 取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斷言하였다(Fan, 1968:178-179). 毛澤東이 주재했던 同會議(1966年 8月 1日 ~12日)에서는 이렇듯 강경한 語調로 蘇聯 지도층을 現代修正主義의 中心部라고 攻擊했을 뿐만 아니라, 同調勢力들까지도 紛彈했던 것이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北韓은 教條主義와 修正主義 및 大國主義를 모조리 批判하고 世界共產黨間의 關係에서 完全한 平等, 自主, 互相尊重, 內政不干涉 및 同志的 協助의 規範을 지킬 것을 強力히 主張했던 것이다. ‘自主性을 옹호하자’는 社說은 共產黨 및 勞動黨들 間에는 어떤 特權的 黨도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指導받는 黨은 있을 수 없는, 모두가 同等한 成員임을 強調했다. 그 理由로서 오늘과 같이 巨大한 規模에서 發展하고 있는 世界革命運動을 그 어떤 單一한 中央이 唯一的으로 指導할 수 없고 어떤 形式을 따른 間에 모든 黨들을 指導할 수 있는 國際的 中央은 오늘의 國際主義運動에 맞지 않으며, 한 黨이 모든 兄弟黨들을 指導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黨이 ‘世界革命의 中心’이나 ‘指導的 黨’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개개 나라의 革命과 建設에 對해서는 그 나라 黨이 直接 責任지고 指導하고 있는 것이며 그 누구도 이것을 代身할 수 없다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多元化 추세를 指摘했다.

이러한 北韓의 대담한 主張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中共의 對蘇挑戰과 東歐共產國家들의 對蘇獨自性主張을 包含한 共產主義運動의 뚜렷한 多元化 현상 外에도 北韓이 過去에 經驗한 中·蘇로부터의 內政干涉, 越南戰에 對한 中·蘇의 消極的 支援, 中共內의 文化革命 餘波로부터의 自體保護, 越南戰의 擴大와 韓·日關係正常化 等에서 온 危機意識과 民族感情을 利用한 住民動員의 必要性 等을 列舉할 수 있을 것 같다.

中·蘇로부터의 自主性主張은 1966年 10月 5日 黨全員會議에서 행한 「現

情勢와 우리黨의 課業」에서 再次 強調되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을 지칭하는 ‘現代修正主義’와 中共을 지칭하는 ‘左傾機會主義’를 모두 신랄하게 攻擊하면서 둘 다 國際革命運動의 前進에 장애가 되는 위험한 存在라는 批判까지 하였다. 金日成은 現代修正主義는 情勢變化와 創造的 發展이란 口實下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修正하여 革命的 진수를 去勢하고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拒否하면서 階級間 協力を 說教하고 帝國主義에 對한 鬭爭을 포기한다고 非難했다. 이어서, “左傾機會主義는 變化된 現實을 考慮하지 않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個別的 命題들을 教條主義의으로 反復하며 超革命的 인 구호를 들고 사람을 극단적인 行動으로 이끌고, 黨을 群衆으로부터 이탈시키며 革命力量을 分散시키며 主敵에 對한 集中攻擊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똑같이 신랄하게 批判했다(Kim, 1977b:484; 梁好民, 1979:345).

他黨에 對한 干涉을 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하면서도 金日成은 이렇듯 批判을 加했는데, 마치 어른들 싸움판에 뛰어든 아이가 준엄한 判決을 내려 兩側이 모두 誤謬를 犯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꾸짖은 것과 같았다. 批判은 계속되어, 金日成은 現情勢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一致團結하여 社會主義陣營을 合同으로 保衛하는 것인데, 內部의 差異들 때문에 社會主義陣營이 堅固하게 뭉쳐진 劢力으로서 前進하지 못하고 國際革命運動과 國際情勢에 否定의 影響을 주고 있다고 非難했다. 이어서, 金日成은 社會主義陣營의 守護와 團結이 모든 共產主義者들의 神聖한 義務이며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陣營의 團結을 弱化시키는 어떠한 行爲도 容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斷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美國이 社會主義陣營의 分裂을 利用하고 있다고 警告하면서, 베트남人們을 支援하여 反美聯合戰線에 參與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修正主義의 區分線이 되는 것이라고 統一된 行動을 促求했다. 即 金日成은 帝國主義에 對한 統一行動을 拒否하는 것은 條正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粹性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美帝를 反對하고 베트남人们을 돋는 것도 아니라고 批判하면서 베트남에서의 合同行動을 強力히 要求했다(Kim, 1977b:486-492). 이렇듯 무모하고 대담할 정도로 金日成은 蘇聯과 中共에 對해 修政主義와 教條主義의 害毒을 說教하고, 修正主義인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인가를 가름하는 方法은 베트남人们的 反美鬭爭을 支援하기 위해 統一된 行動을 取하는가 拒否하는가에 따라 判決이 난다고 力說했던 것이다.

中共의 金日成에 對한 評價가 어떠했는지는 紅衛兵들에 의한 신랄한 攻擊에서 잘 나타났다. 中共과 北韓의 緊密한 關係를 생각할 때, 金日성이 親善과 革命을 배반한 修正主義者라고 非難하고 北韓內의 쿠데타說까지 퍼뜨린 것을 보면 中共側으로서는 金日成의 中·蘇사이에서의 機會主義의in 行動과 真正한 마르크스-레닌主義로 自處하는 것이 뭉시 비위에 거슬렸던 것 같다.⁽⁷⁾ 中共側의 金日成에 對한 修正主義者니 資本主義路線을 追求하는 者니 하는 공격 외에도 호화로운 私生活 等을 들어 批判을 하자, 北韓內에서도 언제까지나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던지 朝鮮中央通信社 명의로 聲明書를 發表하여 北韓內에 쿠데타說이 無根한 것이며 勞動黨의 組織이나 理念이 전재하다고 解明을 하게끔 되었다(反共問題研究所, 1968:248). 金日성이 真正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라면 中共에서 그를 修正主義者라고 경멸하고 非難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機會主義者인 金日성이 타산적으로 中·蘇사이에서 움직이면서 毛澤東路線을 批判하고 中共의 消極的인 越盟政策에 對해 훈시를 하듯 行動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함을 證明하라고 挑戰했으니, 얼마나 金日성이가 不快하고 憎惡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蘇聯으로서도 中共의 對蘇非難과 유사한 金日成의 非難을 달가와 했을 리 없다. 단지 1965年 2月 코쉬긴의 平양訪問以後로 蘇聯에 協助的인 金日成에 對해 不滿이 過度하게 露出되지 않도록 自制했을 것이며, 흐루시초프 때의 經驗을 살려 自尊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外에도 積極的으로 越盟을 돋기로 政策을 바꿨던 브레즈네프에게는, 베트남人们的의 反美鬪爭을 돋기 爲한 合同行動으로 修政主義가 아닌 것을 보이는 金의 發言이 부담이 크게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自主性을 옹호하자’는 北韓의 自主宣言이 나온 裏面を 分析하면 北韓의 背信으로 因한 中共의 노여움에 對한 防禦意識이 더 크게 作用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⁸⁾

金日성의 ‘政治에서의 自主’主張은 1967年 12月 16日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1次會議에서 發表한 政府政綱에서 다시금 強調되었다. 金日成은 黨의

(7) 紅衛兵에 의한 金日성에 對한 攻擊에 關해서는 『國際問題』(1967:24-25); Cho (1968:39); 東亞日報(1967. 2. 21, 23, 27); *New York Times* (1967, Feb. 21:16-2).

(8) 北韓은 2年前만 해도, 中共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원칙을 고수하며 帝國主義를 反對하여 擧烈히 鬥爭하고 있으며 世界人民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一部 사람들이 中國을 맹렬히 공격하며 孤立시키고 배제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소련을 암시적으로 규탄했었다. (근로자 1964. 8; 北韓研究所, 1978:658).

主體思想을 國家活動의 모든 分野에 걸쳐 具現할 것을 強調하는 가운데 政治的 自主性을 공고히 하는 路線을 관철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는 北韓이 “당당한 獨立國家로서 자기의 모든 路線과 政策을 自主的으로 規定하며 對外關係에서 完全한 平等權과 自主權을 行使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어떤 民族이든 完全한 政治的 自決을 實現하여 自己權利를 行使하여야만 獨立과 自由를 保障할 수 있으며 幸福과 繁榮을 이룩할 수 있다”고 力說했다(金日成, 1968:3-4).

金日成이 이렇듯 對外關係에서의 自主를 누차 強調하는 것은 自身의 쓰라린 過去經驗에서 나온 것이며, 그만큼 自主的 立場을 견지하기가 힘들다는 실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1966年 10月 5일의 「現情勢와 우리 黨의 課業」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社會主義大國들로부터 干涉을 받았음을 告白한 바 있다 :

우리黨도 大國主義者들의 內政干涉을 받은 쓰라린 經驗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 大國主義者들은 응당한 反擊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기 어려웠지만 혁명의 利益과 團結의 念願으로 出發하여 問題를 内部的으로 解決하였습니다. 우리는 온갖 內政干涉을 反對하고 大國主義를 경계하여야 합니다(Kim, 1977b:496-497; 極東問題研究所, 1980:67).

이렇듯, 金은 蘇聯과 中共이 北韓內政에 干涉했던 事實을 是認했으며, 경계를 要한다는 말에서 干涉이 持續的인 것임을 示唆하기도 했다.

金日成은 반격을 했다느니 團結을 위해 内部的으로 解決했느니 하는 辨明을 함으로써 體面을 세우려고 했으나, 이는 오히려 北韓의 自主性이 確固하지 못함을 反證하는 것도 된다. 그는 外部에서 勞動黨을 가르켜 中道主義 또는 機會主義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하고, 無原則한 妥協路線을 擇하느니, 兩의자 사이에 걸터 앉았느니 하면서 非難을 한다고 指摘하고 나서, 왜 自己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자를 두고 不便하게 남의 의자에 앉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Kim, 1977b:497). 金日成의 이와 같은 發言을 通해서感知할 수 있는 것은 他共產國家들 눈에 비친 北韓이 果然 어떠한 立場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과, 共產主義大國들로부터의 對北韓批判이 繼續되고 있다는 事實과 金日成의 自主的 立場이 아직도 弱해 自己옹호에 神經을 무척 많이 쓰고 있다는 點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主體思想을 구현한 ‘政治에서의 自主’라는 北韓의 거듭 強調되는 主張에도 不拘하고 影響力이 强한 蘇聯과 中共 사이에서 그 어느一方과도 갈등이 없이 원만한 關係를 維持하고 實利를 거두며 同時에 政治的 自主性을 緊持한다는 것은 強大國을 相對로 해야 하는 北韓에게 現實的으로 어렵고 苦痛과 壓力이 수반되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蘇聯과 中共으로부터의 支援을 必要로 하는 北韓이 自主性만을 強調하여 外勢를 完全히 排除한다는 것은 極히 힘든 것이다. 中·蘇紛爭이 北韓에 對한 中·蘇의 影響力行使을 自制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金日成은 어느 程度의 自己主張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實際로相當한 自主性을 舒展하는 것은 아니다. 蘇聯의 형가리 및 체코슬라바키아侵攻이나 아프가니스탄事態에 對해서도 北韓은 獨自의 立場을 밝히지 못했고, 美·中共關係改善이나 中·越戰에 對해서도 極히 消極의 見解表示 밖에는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支援을 얻기 위해 北韓使節團들이 모스크바와 北京을 자주 訪問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金日成은 限界를 넘는 自主性 主張이 蘇聯과 中共의 感情을 사게 되어 軍經援助 等에 對한 壓力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經驗을 通해서 알고 있으므로, 自主性을 무엇보다 優先視하는 듯 하지만 實際行動에서는 훨씬 慎重하고 中·蘇兩國 모두와의 關係維持에 온갖 神經을 쏟고 있는 것이다.

主體思想이 ‘民族共產主義’가 아니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구차한 主張도 政治에서 自主를 確立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⁹⁾ 金日성이 그自身의 發言을 어떻게 評價할지 의문인데, 民族共產主義가 아니라고 否認하므로써 北韓住民들이 오히려 반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禁할 수 없다. 共產主義라는 이데올로기보다 民族感情에 의존하여 住民들을 持續的으로 動員하면서 共產主義原則에만 充實함을 과시한다면 住民들에 對한 說得力を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시 主體思想의 制限된 自主性을 露出시킨 結果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9) 1972年 1月 10日 金日成은 요미우리新聞記者들과의 面談에서 “主體思想은 反動들이 떠드는 <민족공산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마르크스가 내놓은 <全世界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完全히 부합된다”라고 변명했다(로동신문, 1972. 1. 15). 물론 北韓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한 路線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對外적으로 알리려는 것도 있겠으나, 이는 金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主義者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도 되는 것이다.

3. 自力更生과 對外依存

主體思想에서의 또 다른 強調點은 民族自立經濟이다. 經濟的 自立은 政治的 獨立의 物質的 基礎이며 經濟的 의존은 政治的으로 남에게 매이는 結果를 가져오므로 自立的 民族經濟建設이 重要하다는 것이다(로동신문, 1972. 1. 15). 經濟的 自立없이는 政治的 獨立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金日成이 새삼스럽게 發見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게 되면, 自然히 援援者의 影響은 強해지고 受援者의 立場은 弱해지거나 協助的으로 나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關係는 個人, 家族, 團體, 國家間 어디나 存在하는 普遍的이며 必然的이기도 한 現象인 것이다. 世界의 모든 國家들이 이에 올로기에 簡單함이 없이 온갖 方法을 通해 經濟發展을 追求하고 있는 것은 經濟的 自立의 問題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北韓이 經濟에서의 自立을 처음으로 強調한 것은 3個年 經濟計劃이 끝나고 第1次 5個年 經濟計劃을 推進하기 위한 決意를 促求한 1956年 12月 13일의 黨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였다. 住民들의 生活向上을 도의시하고 重工業 中心의 過激的인 經濟計劃을 어려운 與件에서 推進하기 為하여 金日成은 住民들을 強壓的으로라도 最大限으로 動員할 것과 ‘增產, 節約 및 期限前 超過達成’의 슬로건을 높이들고 닥쳐올 試鍊에 맞서 나갈 것을 要求하였다(Kim, 1977c:166-167). 金日성이 加一層 住民들의 級生과 目標의 早期達成을 要求한 것은 軍事力強化의 必要性과 中·蘇等의 共產國家들로부터 必要를 充足 시킬 수 있는 만큼의 援助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도 基因하고 있다. 不足한 資本과 技術代身에 人力의 集中投入과 住民生活의 級生을 通해 重工業優先의 經濟를 建設하겠다는 것은 일찌기 斯탈린이 1930年代에 强行했던 經濟政策과 根本적으로 유사하다.

北韓의 指導層은 自力更生原則을 執지하여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을 이룩할 것을 主張한다. 北韓側 定義에 의하면 自力更生이란 “自己나라 革命은自己의 主體的力量에 의거하여 完遂하려는 立場이며,自己나라 建設은自己人民의 勞動과 富源으로 進行하려는 自立的 立場”이라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自力更生이란 말을 金日성이 創案이나 한 것처럼 宣傳하고 있는데, 이는 全然 맞지 않는 말이다. 強制勞動을 通해 工業化를 推進한 斯탈린의 方法도一資本과 技術의 不足을 集中的인 勞動力으로 補充一어느 程度 그렇거니와, 毛

澤東思想의 한 가지 특징으로서도 自力更生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第3世界의 많은 國家들이 資本, 資源, 그리고 技術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自力更生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自力更生은 中國共產黨의 歷史的 經驗에서 特히 強調되던 것이다. 第1次 國共合作이 失敗한以後 中國共產主義者들은 地理的으로나 政治·經濟의 으로 孤立된 地域에서 自體的으로 外部의 도움없이 經濟 또는 軍事問題들을 解決해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Townsend, 1974:77-78). 特히 外部의 援助에 의존하지 않고 自給自足으로 自己들의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는 自力更生原則은 1935年 12月 27日 毛澤東에 의하여 主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梁好民, 1979: 347). 中共에서는 第2次 5個年經濟計劃(1958~1962)期間中에 展開되었던 大躍進運動(1957~1960)과 步調를 맞추어 自力更生의 가치를 내걸고 中共人們을 生產活動에 動員하였다.⁽¹⁰⁾

中共의 大躍進運動에 뒤따라 北韓에서도 1959年 2月 유사한 千里馬運動이始作되었는데 金日成도 自力更生의 구호를 부르짖게 되었다. 이는 主體思想을 經濟活動에 구현하기 위함이기보다는 中共을 모방하여 經濟計劃 5個年計劃의 目標들을 앞당겨 達成할 수 있도록 北韓住民들은 最大限으로 動員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오늘날 北韓에서 내세우고 있는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經濟的 自立도 알고 보면 創造의 아니라 이웃에서 經驗했거나 實施하는 것을 導入하여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經濟計劃이 스탈린의 것을 모방하여 社會主義經濟建設의 基盤이 되는 重工業에置重하고 同時に 輕工業과 農業의 基本的인 問題들도 解決하도록 하며, 資本과 技術의 不足은 自力更生의原則下에 勞動力を 最大로 活用한다는 中共의 方法을 導入한 것은 主體思想에서 主張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과는 거리가 멀다.

北韓共產主義者들도 自立更生만 부르짖어서는 經濟建設이順調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70年代에 와서는 日本 및 西歐等地에서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기始作했으나 外貨의 不足으로 難處한 立場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經濟的 의존은 政治的인 종속을 가져온다고 主張해 오던 北韓도 國際協力과 相互依存의 必要性을 外面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10) 大躍進運動은 1958년 가을부터 本軌道에 올랐으며, 樂觀主義와 群衆路線 및 政治優先의 特色를 지녔는데, 結果는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Townsend, 1974:114-115).

中共이 毛死後 經濟政策을 轉換함으로써 閉鎖的인 北韓의 經濟政策에 많은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自力更生에 의한 經濟的 自立의 限界는 現代的 技術의 必要性 및 技術人材의 育成을 強調하면서 經濟의 落後性 清算을 爲한 技術革命과 大衆의 文化水準을 높이기 爲한 文化革命 및 온 社會의 인데리화를 力說하고 있는 테서도 發見된다(金正日, 1982a:48-49). 1980年 10月의 第6次 黨大會에서도 金日成은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힘있게 推進하여 社會主義·共產主義의 物質·技術的 土臺를 쌓아야 한다고 다시금 強調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社會主義·共產主義經濟는 主體化되고 現代化된 經濟일 뿐 아니라 高度로 科學化된 經濟라는 것이며 科學化가 된 토대위에서야 生產이 科學的으로 진행될 수 있고 自立的인 經濟體系와 現代化된 技術水準들이 威力を 나타낼 수 있다고 強調했다(로동신문, 1980.10.11:7). 北韓이 經濟發展을 爲해서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가 必要하다는 데에는 是非할 理由도 必要도 없다. 그렇지만, 自力更生만 부르짖는 閉鎖體制인 北韓이 어떻게 이런 目標들을 達成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疑問의 餘地가 많다. 지금의 經濟體制를 轉換하지 않고서는 高度의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가 없음은 蘇聯 및 東歐國家들의 苦憫에서도 알 수 있다. 經濟에서의 예속 關係發生만을 두려워하여 孤立된 政策을 계속 追求한다면 經濟의 落後性은 持續될 것이고 따라서 北韓이 宣傳하는 主體思想의 原則인 經濟에서의 自立은 試鍊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自力更生 또는 政治事業을 앞세워 大衆의 热誠과 創發性을 動員하여 革命課業을 遂行케 만든다는 群衆路線인 青山里方法만으로는 經濟發展을 順調롭게 이룩하기가 힘들 것이다. 더우기, GNP의 20% 가량은 軍事費로 써야 하는 무리한 政策은 北韓의 經濟發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

4. 自衛와 能力의 限界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戰爭의 根源이 帝國主義者들과 反革命勢力이라고一方의으로 斷定하면서 이에 對處하기 爲해서는 自衛態勢를 갖춰야 한다고 強調한다. 그들은 國防에서 自衛가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自立의 軍事的 담보이며 國防에서 自衛原則을 관철하여야 帝國主義의 侵略과 干涉을 물리치고 革命의 전취물과 人民들의 安全을 保衛할 수 있는 것이라고 力說한다(金正

日, 1982a:51-52)). 國防의 基本은 어디까지나 自體의 힘이며 남에게 의탁 할 수 없다는 主體思想의 具現인 ‘國防에서의 自衛原則’은 다음과 같은 點들을 強調한다: (1) 自衛的 武裝力; (2) 全人民的 및 全國家的 防衛體系樹立과, 이를 위한 全軍의 幹部化, 軍裝備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그리고 全國의 要塞化; (3) 人民武力의 政治思想의 優越性 발양; (4) 自體의 國防工業建設; 그리고 (5) 人的 및 物的 資源의 長期的 保障을 위한 後方의 強化 等이다(金正日, 1982a:52-55).

自衛國防은 어느 나라간 모두 願하는 바로서; 北韓이 自衛를 強調한다고 해서 特別히 새로울 것은 없다. 自己 나라가 處한 狀況에 따라 自衛路線을 擇하기도 하고, 協力·同盟關係를 통해 國防力を 補完하기도 하는 것이 常例이다. 北韓의 問題는 自衛를 지나치게 強調하여 戰時體制를 방불케 하는 軍事化 政策을 推進하는 데 있으며,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外觀은 꼽시 敵對的이고 階級鬭爭的이어서 和解나 協力의 餘地가 없이 戰鬪的이라는 점이다. 軍隊는 勤勞大衆의 子女들로 組織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政治思想의 优越한 軍隊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點을 그들은 強調한다. 政治思想의 优越性이 現代的 技術과 結合되면 無敵의 軍隊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인데, 政治的인 세뇌공작을 通해서 盲目的으로 충성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命令에 순종하는 軍隊를 北韓共產主義者들은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령듯 칠지한 軍事化政策은 對內의으로 많은 經濟的 負擔을 超來하고 있을 뿐아니라, 對外의으로도 國際的 緊張을 造成하고 特히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北韓指導層은 ‘自衛’라는 口實下에 軍事力を 구준히 增強시키고 있음을 본다. 6.25사변을 論하지 않더라도, 1960年代 後半期의 极심했던 武力挑發事例들이나 越南이 敗亡할 直前인 1975年 4月 中旬 金日成이 中共訪問中에 行한 好戰的인 發言 等은, 自衛路線이 自衛에 그치지 않고 機會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攻擊으로 轉換될 수 있는 武裝力を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住民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必要以上的 軍事力を 保有하고 있는가 하는 當然한 의문이 提起되는 것이다. 더구나, 1961年 7月 6日과 11日에 각各締結된 中·蘇와의 軍事同盟이 有效하며, 韓美防衛條約은 오로지 韓國의 被侵時에만, 그것도 協議를 거쳐, 效力を 發生할 수 있는 制限的인 條約임을勘案할 때, 北韓의 軍事政策은 自衛만을 為한 것으로 볼 수 없고 好機가 來

到할때 韓半島赤化를 軍事的으로 뒷받침하기 為한 準備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判斷을 하게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北韓의 軍事政策은 韓半島의 共產化라는 最高政策目標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지 單純히 外侵에 對備하기 為한 自衛力強化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北韓의 軍事政策은 朝鮮事態 直後인 1962年 12月 黨中央委 第4期 第5次 全員會議에서 國防에서의 自衛原則에 따른 ‘四大軍事路線’을 採擇함으로써 轉換點을 이루었다. 全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幹部化, 全國의 要塞化 및 裝備의 現代化라는 四大軍事路線을 擇하게 된 背景에는 中·蘇紛爭의 深化와 中共에 同調했던 北韓에 對한 蘇聯의 報復의in 軍經援助中斷이 있었다. 國際情勢가 惡化된다고 認知했던 北韓은 國防力を 自力으로라도 增強시킬 必要性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四大軍事路線이 出現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主體思想의 具現이라는 自衛路線은 不利하고 외로웠던 狀況에서 나왔던 것이다. 金日成의 獨創性과는 無關한 것이다. 萬一 그 當時에 金日성이 蘇聯과의 關係를 그르치지 않아 充分한 武器를 모스크바로부터 供給받을 수 있었거나 積極的인 保障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金日성이 그토록 不安해 할 必要는 없었을 것이다. 蘇聯으로부터의 援助나 保障이 끊겼다고 中共은 弱勢라 의존할 수 없는 狀況에서 金日성은 毛澤東의 方式을 따라 自力更生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北韓에서는 金日성의 軍事的 創造性을 宣傳하기 위하여 그의 抗日鬪爭경력을 誇張하고 심지어 1978年부터는 軍創建日까지도 그가 抗日遊擊隊를 創設하였다는 1932年 4月 25日을 記念하기 위해 같은 날로 變更했다. 軍事思想에서의 金日성의 獨創性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레닌 및 毛澤東의 思想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레닌의 社會主義·資本主義社會間의 戰爭不可避免論 및 解放戰爭을 正義戰爭視하는 見解는 金日성에 의해서도 그대로 強調되고 있으며, “銃口로부터 權力(政權)이 나온다”는 毛澤東의 理論도 “武裝을 들어야 政權을 잡을 수 있다”는 金日성의 發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發見하게 된다(極東問題研究所, 1980:411). 軍事的인 理論面에서 金日성의 創造性 主張이 宣傳과는 달리 周邊共產國家들인 蘇·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否認할 수가 없다. 國防에서의 自衛도 延安時代의 毛澤東이 孤立無援한 狀況에서 이미 經驗했던 바에 比해 本質的으로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물론 남의 經驗을 活用하는 것은 權力者인 金日성이 決定하기에 달렸겠지만,

北韓이 蘇聯과 中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있으면서도 金日成의 獨創的인 自衛路線에 充實한 것처럼 宣傳하고 있는 것은 說得力を喪失하고 있는 것이다. 自衛路線이라는 것은 狀況이 如意치 않을 때 獨力으로 活路를 찾는 것이다. 이는 金日成의 新軍事理論도 아니며, 北韓의 形便으로 보아 完全한 ‘自衛路線’이란 存在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本章에서는 主體思想의 原則으로 強調되고 있는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의 形成過程과 그들이 지닌 問題點들을 檢討하고 批判하여 보았다. 다음은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主體思想이 果然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한 思想인가를 檢討하고 主體思想의 獨創性 與否도 진단해 보고자 한다.

VI.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間의 關係

金日成은 그의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 眞理를 朝鮮의 具體的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는 마르크스-레닌主義路線에 充實하면서 새로운 狀況展開에 따라 運用하고 發展시킨다는 意味이다. 하지만 實際로는, 金日成의 獨創의라는 主體思想은 理論上의 脆弱點들을 보이며 프롤레타리아共產主義에 充實하다는 主張도 確實한 解明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唯物史觀과 意識問題를 強調한 主體思想間에도 相衝되는 基本的 立張이 發見된다. 먼저, 辨證法의 唯物論과 主體思想間에 어떠한 基本的인 差異가 存在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辨證法의 唯物論과 主體思想

마르크스는 辨證法의 唯物論에 立脚해서 歷史의 發展을 理解하고 說明하였는데 이는 헤겔의 觀念論에 反對되는 立場이다. 마르크스는 經濟體系의 變化가 上部構造를 變化시킨다는 經濟決定論者の 立場을 取했으며 歷史를 그러한 觀點에서 보는 唯物史觀을 主張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唯物史觀의 理論이 歷史的인 事實에 立脚하여 科學的으로 導出된 法則에 근거하는 것이지 推論의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人間이 그들의 歷史를 創造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願하는 바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에 決定이 되어

그들에게 부여된 與件에 따라 歷史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앵겔스는 말하기를, 歷史上 積極的이던 많은 個人들의 意志力들은 大部分 그들이 의도했던 바를 創出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正反對結果를 超來했음을 謂이며, 그들의 動機란 全體的인 結果와 聯關시켜 볼 때 二次의in 重要性에 不過하다고 보았다(Hampsch, 1965:17). 人間의 歷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의 하나는 物質的인 需求를 充足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經濟的인 必要性은 社會構造의 다른 部分들이 存立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모든 上部構造는 當時의 生產方法의 結果라고 마르크스는 規定했던 것이다(Hampsch, 1965:18).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에 對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受容하는 態勢를 取하기는 하지만, 마르크스가 그의 理論을 社會變化過程을 支配하는 科學的인 法則으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 當代의 要求를 反映한 것으로만 받 아들인다. 即, 마르크스의 唯物史觀만으로는 새로운 時代의 새 狀況에서 發生되는 問題들에 對한 解決策을 주지 못한다는 主張이며, 自主性을 指向하는 現時代의 革命的 世界觀을 밝혀주는 것은 主體思想이라는 것이다. 北韓側 宣傳을 들으면 마치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마르크스思想이 다루지 않은 部分을 完成시켜 나가는 서로 맞먹는 程度의 思想인 것 같은 印象을 준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지난날 世界觀의 發展歷史는 相反되는 唯物論과 觀念論, 辨證法과 形而上學의 戰爭歷史였는데, 이 戰爭에서 마르크스主義는 唯物論과 唯物辨證法의 勝利를 確定하였다”고 主張하며, 마르크스 唯物辨證法은 當代의 要求를 反映한 것으로서 資本의 支配를 神聖化하고 그 永遠性을 為해 服務하여 온 觀念論과 形而上學을 打破하고 勞動階級의 科學的인 世界觀을 밝혀주었다는 評價를 내리고 있다(金正日, 1982a:73). 이렇듯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金日成의 思想의 發展에의 공헌을 造作하기 為하여 마르크스思想을 背定的으로 評價는 하되 ‘當時代의 要求를 反映’했다는 式으로 制限的인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評價는 비단 마르크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레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適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北韓側 學者들이 主張하는 것을 보면 先行 마르크스-레닌主義哲學은 物質과 意識의 相反되는 問題를 哲學이 解決하여야 할 根本問題로 認定하고, 物質이 一次的이나 精神이 一次의이냐, 사람이 物質世界를 認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데 先次의 意義를 부여하였으며, 그들은 各樣各色의 反動的 觀念論과의 戰爭에

모든 힘을 돌리느라고 自然과 社會를 改造・變革할 수 있는 實踐에 關한 哲學理論을 發展시키는 데 응당한 힘을 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極東問題研究所 1974:10, 재인용, 金甲喆, 1977:170).

이렇듯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공헌을 認定해 주되 制限된 것이었음을 強調하는 理由는 마르크스, 레닌의 뒤를 이은 共產主義理論가가 金日成이라고 내세우기 위한 것임은 明白한 일이다. 北韓이 김일성을 내세우는 근거를 보면, 勤勞人民大衆이 偉大한 力量으로 登場한 새 時代는 그들이 自己運命의主人이 되어 그것을 自主的으로 創造的으로 開拓하며 民族解放, 階級解放, 人間解放의 歷史的 偉業을 實現해 나갈 수 있게 하는 新しい 世界觀의 出現을 要求하며 이 問題는 主體思想의 創始로 因해 解決이 되었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74). 즉 마르크스, 레닌의 思想으로 解決 못하는 現時代의 問題들이 主體思想의 出現으로 解決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紅美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金日成個人崇拜의 극치인 듯 싶다.

이미 第2章에서 檢討한 바가 있지만, 主體思想은 世界의 主人으로서의 사람의 地位와 役割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對한 새로운 解明을 했다고 北韓의 公式的 見解는 主張한다. 先行哲學들은 大部分 社會的 關係를 떠나 순수 人間에 對한 추상적인 見解에 不過했고 人間의 本質에 關한 問題가 마르크스에 의하여 社會的 關係속에서 提起되고 解明된 데 比하여, 主體思想은 사람이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人間에 對한 완벽한 哲學的 解明을 했다는 主張이다(金正日, 1982a:74-75).

사람이 世界를 改造하고 自己運命을 開拓한다는 主體思想은 觀念論이나 形而上學과는 根本的으로 對立되는 唯物論의 辨證法의 立場을 前提로 한다고 北韓側은 強調한다. 觀念論이 世界와 사람의 運命이 超自然的인 '힘'에 의하여支配된다는 神秘主義에 歸着된다면, 形而上學은 世界의 모든 것은 不變하며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宿命論에 歸着되지만, 主體思想은 物質世界 發展의 最高產物인 사람에 의한 世界의 支配와 그 改造發展의 原理를 獨創的으로 定式化했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74-75).

金日成의 主體思想合理化는 獨創적인 印象을 強하게 풍기고, 理論으로도 充分히 洗鍊되지 못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이 중요하고 中心이 된다는 것은 마르크스, 앵겔스 및 레닌도 金日成에 앞서서 認定한 바이다. 그들도 變革을 強調했으며, 특히 레닌은 革命의 與件이 成熟치 못했다고 보았던 러시

아 社會를 크게 變革시킨 人物이다. 아무리 金日成이 主體思想을 새 시대에 맞는 革命思想이라고 主張해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不過할 뿐이지, 푸렸하게 創造的인 面을 찾아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主體思想에서는 ‘사람中心’을 強調하면서, 人間의 層性인 意識性으로 因해 사람은 세계와 그 運動發展의 合法則性을 파악하여 自然과 社會를 改造·發展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는, 사람이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려 든다면 可能하다는 것으로서,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經濟決定論과 重要한 差異點을 지닌다. 即, 人間에게 이미 주어진 與件에 따라서 大體로 歷史發展이 이루어진다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立張은, 人間이 환경이나 與件에 순응하지 않고 自主的이고 創造的이며 意識的인 活動을 通해 世界를 改造해 나간다는 主體思想의 立場과 큰 差異를 보여주는 것이다. 即,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歷史의 發展에서 人間의 役割이 限定的임을 밝혔는데 比해, 主體思想은 사람이 中心이 되어 自然과 社會를 改造할 수 있다는 正反對되는 立場인 것이다. 단지, 主體思想이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人間이 果然 어느 程度나 自然과 社會를 改造·變革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解明이 없다는 點이다. 改造·變革의 범위가 크지 못하다면 말만 요란했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으로 되돌아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北韓이 處한 實情만 보아도, 北韓 마음대로 解決되지 않는 數많은 問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사적으로 엄청나게 表現하되 實踐이 따를 수 없는 理論이라면 空論이 되어 理論으로서의 價值를 잃고 말게 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觀念論과 反對되는 場立을 取했다면 毛澤東의 ‘人間意志’ 強調는 마르크스의 立場을 다시 바꾼 셈인데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毛의 立場을 따르는 셈이 된다. 따라서,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適用했다는 말에 어폐가 생긴다. 主體思想은 反對立場을 명백하게 解明함이 없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 真理에 充實하다고 主張만 하고 있는 것이다.

2. 民族共產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마르크스는 人類史를 階級鬪爭史로 理解하였으며, 階級間의 利害·關係는 民族單位國家의 國境을 超越해 서 成立된다고 믿었다. 『共產黨宣言』에 나오는 “萬國의 勞動者여 團結하라！”는 구호는 民族이나 國家單位를 초월하여 勞

動者階級의 連帶感을 強調한 것이다. 그러나, 第1次世界大戰의 발발과 展開過程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方向과는 反對로, 民族感情이나 自民族의 利益이 같은 階級間의 利益보다 優先한다는 事實을 입증했다. 블쉐비키 革命直後인 1918年 3月 레닌이 독일과 브레스트 리트보스크條約을 締結한 事實과, 1939年 8月 23日 蘇聯이 獨逸과 條約을 맺고 폴란드를 分割占領한 事實,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 二次大戰後 赤軍에 의한 東歐의 共產化, 中·蘇紛爭, 犢ガリ事態, 브레즈네프독트린, 中·越國境戰爭 等은 모두가 階級理念보다는 民族國家들의 利益이 優先視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主體思想에서 強調하는 것은 自己의 머리를 써서 自主的으로 問題를 解決하고, 自己 힘을 믿고 民族的 狹持를 지니며, 自立的 民族經然를 建設하고, 國防에서의 自衛態勢를 갖추도록 하는 等 民族主義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 오늘날 地球上 어느 國家도 民族感情을 考慮하지 않고서는 統治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民族主義勢力은 실로 막강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는데, 北韓指導層 역시 民族感情에 銳敏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統治이데올로기로 삼는 것도 民族主義가 지니는 愛國心이나 献身精神을 利用하여 北韓住民들을 最大限으로 動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主體思想이 民族共產主義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마르크스가 내놓은 <全世界 프로레타리아는 團結하라!>는 原則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完全히 부합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는 北韓이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自主性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同時に 國際主義의 團結과 協助를 強化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다고 強調하면서, 自主性을 떠난 國際主義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際主義를 떠난 自主性도 있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서 金日成은 自主性의 구실 밑에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등을 돌리는 것은 共產主義者들의 態度가 아니며 民族利己主義로 전락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힘써 그의 共產主義의 立場을 강조했다.⁽¹¹⁾ 金日成의 이러한 發言은 思想에서 主體를 確立하고 政治에서 自主性를 堅持해야만 된다는 그自身的 反復強調된 發言을 否認하는 격이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共產主義國家끼리라도 民族主義와 國際主義間에는 利益相衝으로 因한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自國의

(11) 1972年 1月 10日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들과의 面談(로동신문, 1972.1.15:1). 金日成은 1966年 10月의 「現情勢와 우리黨의 課業」이라는 報告에서도 黨의 立場은 孤立主義와 民族主義를 否認한다고 밝혔었다(Kim, 1977b:499).

利益을 옹호하려면 國際主義的인 立場이 소홀해지거나 自己則 立場을 强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通例인 것이다. 지난 1980年 10月의 第6次 黨大會에서 金仲麟은 金日成의 對外의인 유연성있는 發言과는 달리 “민족문제는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온갖 形態의 支配主義의 險 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生命인 自主性을 完全히 實現하는 것”이라고 力說하고 “民族을 떠나서는 革命과 建設이나 思想理念도 모두 無意味한 것”이라고 主張했었다(로동신문, 1980. 10. 14:9). 이러한 강경한 發言을 分析할 때, 主體思想이 果然 國際共產主義運動과 잘 和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發言과는 별로도 北韓이 處한 現實을 보면 과연 金日성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한 共產主義者인가 하는 판가름이 나게 된다. 國際主義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共產圈內에서도 孤立되고 가장 閉鎖的인 社會로 定評이 나 있다. 다른 共產主義國家들과 協助하고妥協하지 않고自己만 옳다는 北韓을 他共產國家들이 환영할 리 없는 것이다. 소련과 中共에 對해서도 現代修正主義니 教條主義니 하면서 모두 非難을 하면서, 北韓만이 올바른 마르크스-레닌主義路線을 걷고 있다고 主張하지만 中·蘇사이를 利害關係에 따라 왕복하는 北韓을 다른 共產主義國家들이 어떻게 볼지는 짐작이 간다.

北韓은 ‘民族’과 ‘民族主義’를 區分한다. 民族은 北韓의 政治辭典에 의하면 “言語, 地域, 經濟生活, 血統과 文化, 心理 等에서 共通性을 歷史的으로 形成된 사람들의 公고한 集團”이라고 定義한다. 이는 西歐에서 말하는 概念과 비슷하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族概念을 階級的 觀點에서 부르죠아的 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區分한다. “社會主義的 民族은 勞動階級이 主權을 잡고 生產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에 기초하여 勞動者, 農民, 균로인테리 等 社會의 모든 成員들이 서로 協助하고 방조하는 社會主義社會關係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民族”으로서, “착취계급이 被擣取階級을 억압하는 부르죠아 民族”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民族主義에 對해서는 “階級的利益을 가장하고自己民族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民族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民族들 사이의 不和와 敵對를 일삼는 부르죠아 思想이며, 나라 自體의 民族의 利益과 勤勞大衆의 階級的 利益에 배치되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및 社會主義의 愛國主義에 敵對的이 된다”고 民族主義를 배격한다(北韓研究所, 1983:1864).

北韓의 民族主義概念은 마르크스-레닌의 立場인 부르죠아 民族主義思想

으로 定義된다. 民族主義가 大衆의 階級的 利益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배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理解하고 있는 自民族中心의 포괄적 民族主義가 아니라 勤勞者階級의 民族主義라는 묘한 論理이다. 民族을 重視하되 부르조아 民族主義를 拒否한다는 전형적인 共產主義者들의 立場을 表明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運動에 充實한 鉢 하지만, 民族을 어떻게 階級的으로 區分하여 第3世界에서 강렬한 呼應을 얻고 있는 民族主義를 배척할 수 있는지 上식적으로理解하기 힘들다. 여러 面에서 同質性을 지닌 構成員들을 단지 階級的으로 다르다고 拒否하는 것은 民族이나 民族主義를 論할 資格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經濟決定論에 立脚하여 民族主義를 論한다는 것은 마음의 狀態나 귀속감을 重視하는 民族概念과 너무 거리가 멀고 說得力도 없다. 北韓이 民族主義를 資本主義社會의 概念으로 規定하고 그를 배격하는 것은 民族主義理論面에서도 重大한 결함을 지니는 것이며 民族感情을 끊임없이 利用하고 있는 現實을 보아도 모순이 된다. 主體思想이 民族感情과 가까운 것이라면 마르크스, 헤닌의 民族主義觀 및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과 葛藤을 일으키는 것이고 主體思想이 民族感情과 無關하다면 北韓住民들을 動員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充實하고 偉大한 共產主義理論家로 行勢하려는 金日成의 慾心과, 民族感情에 呼訴하여 야만 北韓住民들을 動員하고自己의 長期獨裁를 持續할 수 있다는 現實의in 必要性이 金日成으로 하여금 갈등관계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民族兩者를 모두 優先視하는 묘한 立場을 強調하게 만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立場은 두 토끼를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 것과도 같다. 金日成은 편의적이고 實利的이며 機會主義라는 印象을 주게 되어, 양측에서 모두 反撥할 수도 있는 것이다. 中·蘇等의 共產主義國家들은 金日成의 主體路線을 國際主義에 充實하지 못한 民族共產主義로 간주할 것이며, 한편 北韓住民들은 主體思想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金日成의 合理化에 점차적으로 疑問을 갖게 될 뿐 아니라 民族을 階級的 觀點에서 區分하는 分裂政策에 對해서도 漸增의으로 不滿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主體思想의 獨創性 問題

主體思想이 形成된 過程을 檢討하면, 金日成이 50餘年前에 主體思想을 創

案했다는 主張은 根據가 弱하고 誇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主體思想이 탁월한 思想體系라는 것은 金日成의 神格化가 빚어낸 產物이기도 한 것이다. 大部分의 理論이 實踐過程에서 어느 程度의 柔軟性을 갖게 됨은 必要할 수 있는 것인데, 主體思想이 獨創의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무리이다. 中共의 경우를 보아도 훨씬 온건한 表現을 쓰고 있다. 1982年 9月 6日 採擇된 黨憲에는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中國에서 運用・發展된 것이고, 實踐을 通하여 證明된 中國革命과 建設에 關한 正確한 理論原則과 經驗의 總括이며 中國共產黨의 集團지혜의 結晶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人民日報, 1982. 9. 9; 國際問題研究所, 1982:2). 中共에서는 毛思想을 ‘創造的’이라고 過大宣傳하지도 않으며, 毛澤東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지는 않고 있음이 主體思想과의 差異點으로 發見된다. 물론 毛死後의 黨憲이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金日成의 境遇自己의 獨創性을 過大宣傳하고 있다.

理論과 實踐의 完全한 一致라는 것은 期待하기 힘들다. 實踐過程에서 차질이 發生하기도 하며, 때로는 創造性이 要求되기도 한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을 가르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했다고 主張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조금도 신기하거나 감탄할 것이 못된다. 소련에서 마르크스은 適用되어 온 過程을 보면 主體思想에서 強調하는 上의 ‘創造的 適用’이 행해져 웃음을 볼 수 있다. 레닌은 유럽에서 產業發展이 늦고 프롤레타리아 劋力이 弱했던 러시아 社會의 變革을 위해서 마르크스 理論을 變形시켜 適用했었다. 레닌의 革命적인 엘리뜨 中心의 黨概念을 생각하면 分明히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에서의 創造的 適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은 마르크스가 『資本論』1卷의 마지막 部分에서 示唆했던 ‘더發展된 段階(Higher Stage)의 資本主義’에서 創造的으로 進前된(creative advancement) 것이며,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socialism in one country)는 레닌에게서 영감을 얻어 發展시킨 理論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最近에 와서 흐루시초프는 ‘平和共存’으로 마르크스主義의 創造的인 前進을 더욱 推進시켰고 毛澤東의 ‘白花濟放’으로 中共도 ‘理論의 展開’를 경험했다고 죠지 햄쉬(George H. Hampsch)는 理論과 實踐上의 結合問題를 評하고 있다. 햄쉬의 指摘에 의하면, 人類歷史上 理論에 완벽하게끔 實踐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나 宗教는 없었으며 共產主義도 例外는 아니라는 것이다(Hampsch, 1965:viii-ix).

그렇다면 北韓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變形되어 適用되는 것은 당연히 생각될 수 있는 性質인 것이다. 主體思想을 가리켜 새시대에 맞는 創造的인 새로운 理論이라고 誇張宣傳하는 것은 與件에 따라 實踐過程에서 變形이 必要하게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도외시한 데서 나오는 所致이다. 主體思想에 나오는 具體的 現實에 맞는 創造的 適用이라는 表現은 1957年 11月 16日의 社會主義國家들의 共產黨 및 勞動黨大會에 관한 모스크바宣言에도明白하게 나와있는 句節이다. 北韓에서 이야기하는 主體思想의 定義와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것을 누구나 다음에서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各國의 具體的인 現實에 맞게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의 一般原則들은 創造的으로 適用할 것을 要求하며, 他國共產黨들의 政策이나 戰術들을 機械的으로 모방하는 것을 拒否한다. 레닌은 그 나라의 特殊한 形便에 따라 共產主義의 基本原則들을 올바르게 適用할 必要性을 누차 환기시켰다. 프롤레타리아黨이 나라의 特殊性을 無視한다면 불가피하게 現實과 大衆으로부터 멀어지고 社會主義의 大義를 側向시키게 되며, 反對로 나라의 特殊性이라는 口實下에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關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 真理로부터 이탈하거나 特殊性의 役割만을 과장한다면 이 또한 社會主義・大義에 해로운 것이다. 이 大會의 參加者들은 이 두가지 경향에 對하여 同時に 戰爭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Gittings, 1968: 315).

主體思想에서 누누히 強調하는 ‘具體的 現實’과 ‘創造的 適用’이라는 말은 이미 모스크바宣言에 明記되어 있고, 이宣言에서 教條主義 및 修正主義의 폐단에 對해서도 양쪽을 모두 비난하고 있음을 分明히 볼 수 있다. 北韓에서는 「自主性을 옹호하자」는 글이 1966年 8月 12일에 나타났지만, 훨씬 前인 1957年 11月의 모스크바宣言은 各國의 實情에 맞는 路線을 公開的으로 認定했으며 同時に 지나침이 없도록 注意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유고의 경험을 제외하고도 모스크바宣言以後 近 1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北韓이 自主路線을 對外的으로 言宣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中共이나 蘇聯의 影響力이 強하였음을 意味한다. 주변환경이 바뀌어 소련에서는 第23次黨大會(1966年 3月～4月)를 열어 흐루시쵸프路線을 정리하고 스탈린의 立場이 다시 強調되었으며, 中共에서는 1966年 5月 以後 本格的으로 文化革命의 熱風

이 일기始作한 時點에서, 金日成이 自主路線을 強力하게 表明하였다는 것은 不安全感과 不確實性에서 오는 守勢的인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물론 베트남에 對한 中·蘇의 消極的 支援에 對한 불만이라든지, 情勢變化로 因한 軍事政策強化 等을 為한 住民動員의 積極化 必要性 等이 北韓의 行態를 硬直化시키고 中·蘇에 對한 挑戰的인 姿勢까지 取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主體思想을 獨創的인 純粹한 理論體系로 把握하려고 努力하면 곧 限界에 부딪치게 마련이지만, 北韓이 處했던 狀況에서 金日成中心의 體制維持를 為한 實踐的統治이데올로기로서 形成되어 왔다고 본다면 훨씬 理解하고 說明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것이 時間의 경과와 주변 情勢變化에 따라 理論化作業이 強化되었던 것이며, 1960年代末로부터 第5次黨大會가 열린 1970年 11月까지에는 主體思想의 理論體系를 強調하기에 이르렀으며, 1970年代에는 北韓內는 물론 第3世界에까지 主體思想을 獨創的인 偉大한 思想인 양 宣傳하고 擴散하기에 분망하여 왔다. 이렇듯 构成에 가까운 主體思想의 보급을 위한 對內外的宣傳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늦출 줄 모르고 推進되고 있다. 아마도, 金日成이 生存해 있는限 큰 變化를 期待하기란 힘들 것 같다. 主體思想의 참다운 評價는 金日成의 몰락이나 死後의 格下運動과 함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 것인가? 이를 紋明하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었다. 北韓側 스스로의 답변에 의하면, 主體思想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 眞理를 朝鮮의 具體的 實情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 새롭고 獨創的인 새 시대의 指導理念이라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形式的으로 약간만 다루면서 主로 社會關係속에서 사람의 本質的 特性을 밝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哲學的 原理를 解明했다는 主體思想을 強調한다. 그들은 主體思想이 觀念論이나 形而上學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며, 唯物論 및 辨證法의 立場을 前提로 한다고 하며 마르크스와 같은 立場임을 強調한다. 마르크스 以前에는 唯物論이나 辨證法을 제창한 사람들도 社會歷史에 對해서

는 觀念論의 이 있다고 批判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만은 社會도 自然과 같이 物質世界에 屬하며 物質世界發展의 合法則性에 따라 變化發展한다는 것을 밝혀주어 社會歷史에 對한 觀念論의 見解를 打破하였다고 마르크스의 공로를 일단은 認定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主體思想은 마르크스가 더욱한 것을 더욱 發展시킨 것이라는 게 北韓側 主張으로서, 主體思想은 社會歷史에 作用하는 物質world發展의一般的 合法則性을 是認하면서 社會歷史에 고유한 合法則性을 밝혔다는 것이다(金正日, 1982a:74-76).

主體史觀의 基本內容을 이룬다는 社會歷史原理라는 것을 보면, 歷史의 主體는 人民大衆이며 社會歷史運動은 그들의 自主的·創造的 運動이며 그들이 지닌 思想意識이 革命鬪爭에서 決定的 役割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歷史發展과 社會革命을 主體인 人民大衆을 中心으로 보는 새로운 觀點과 立場의 確立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金日成도 마르크스 못지 않는 公적을 이루었다고 北韓에서는 對內外的으로 宣傳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勞動階級의 革命的 世界觀을 確立하였는데 主體思想은 이를 새롭고 높은 段階로 發展完成시켰다는 것이 北韓의 主張이다(金正日, 1982a:74-76). 主體思想이 마르크스主義와 比較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공헌을 했다는 北韓側 主張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허위선전이며 金日成個人崇拜를 強調하다보니 그토록 터무니없이 擴大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批判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主體思想이 勞動階級의 世界觀과 自主·創造的 運動 및 意識을 強調하면서 結局은 ‘金日成의 指導와 結合’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는 點이다. 個人的 權力維持와 野心만을 追求하면서, 과연 어떻게 歷史的인 새로운 理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지 理解를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아들인 金正日까지 ‘指導者’로 부각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行爲가 된다. 요란하게 선전하는 主體思想이 궁극적으로는 金日成家族을 위한 수단으로 轉落하고 만다면,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와 同等한 位置를 主張한다는 것은 기만이거나 웃음 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라는 것은 獨創的인 것이 못되며, 金日성이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사람들이 걸은 과정을 경험하지도 못했었다. 1945年에 소련軍을 따라 歸國한 金日成은 蘇聯의 청사진에 따라 行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東歐諸國의 경우와 유사했던 것이다. 1946年 8月에 制定된 勞動黨規約을 보면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으며”

라는 句節을 確認할 수 있으며, 1956年 4月의 第3次黨大會에서도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 學說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規定함으로써 金日成이 統治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原則을 受容하였음을 發見하게 된다(재인용, 極東問題研究所, 1980:65).

그러나, 金日成은 北韓에서 그의 一人獨裁支配體制를 공고히 하기 위한 統治이데올로기를 必要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 그의 主體思想이라는 것을 程度적으로 강조하기始作하고 그에 步調를 맞추어 理論的體系를 갖추기에 바빠졌던 것이다. 金日成이 그의 主體思想을 네 세우게 된 경위를 보면 유고의 티토와 같은 人物이 對蘇獨自路線을 成功적으로 維持했으며, 스탈린死後 東歐共產國家들이 民族共產主義路線을追求하였으며, 中國共產黨의 獨自的立場 強調等, 世界共產主義運動의 多元化 추세에 크게 힘입었던 것이다. 이러한 新趨勢를反映한 것이 1957年 11月의 모스크바宣言이었는데, 北韓의 主體思想은 그宣言文을 文字 그대로 利用하고 있다. 中·蘇紛爭의 惡化는 北韓의 立場을 難處하게 만들었으며 中·蘇로부터의 壓力에 直面하게 된 金日成은 主體를 強調하게 되었다. 對內의 으로는 北韓住民들의 金日成에 對한 忠誠과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舉生을 강요하기 위해, 民族感情을 利用하기 為해 主體思想을 강조하였다. 韓半島의 分斷과 統一에 對한 온 겨레의 염원 때문에 主體思想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을追求하는 데도 有用한 武器로 使用되고 있다. 이렇듯 主體思想은理想的 인目標들을 指向하는 순수한 이데올로기로서 보다는 現實의 問題들을 解決하기 為한 實用적인 實踐 이데올로기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을 보게 된다.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間의 關係에 있어서 먼저 指摘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唯物論의 立場을 強調하는 데 比해, 主體思想은 人間의 特性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이다. 마르크스가 經濟決定論者の 立場이라면, 金日成은 唯物史觀을 受容하면서도 ‘人間爲主’를 強調함으로써 모순되는 立場을 보여준다는 點이다. 人間이 世界와 社會를 決定한다는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反對되는 ‘人間意志’를 強調한 毛澤東思想의一面과 유사함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毛思想이 마르크스思想을 變形시켰듯이 金日成의 主體思想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形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主體思想의 또 다른 主要한 差異는 主體思想이 現

實的 必要에 의하여 民族主義를 묘하게 가미하여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을 階級的으로 分別하고 民族主義는 부르죠아 思想이라고 非難하면서도 이를 利用하기 為해서 民族感情을 重視하는 二重行態를 露出한다. 主體라는 말 自體가 民族主義色彩를 強하게 풍기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金日成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 充實한 척 하느라고 民族共產主義가 아니라고 強力히 否認한다. 第3世界에서 民族主義를 重視하거나 效果的으로 利用하지 않고서는 統治하기가 힘든 것은 常識에 속하는데, 金은 對外的으로 이를 否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對內的으로는 民族感情에 호소하여 目標들을 追求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共產主義라는 外來의 이데올로기만으로는 住民들을 動員하기 힘들다는 限界때문에, 보다 效果的이고 強力한 이데올로기인 民族主義를 共產主義者들도 利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北韓住民들처럼 지속적으로 虐害를 強要당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統治할 수도 없을 것이다.

民族을 부르죠아的 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區分하여 論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어설프고, 근로大衆에게만 民族主義가 해당된다는 것도 語不成說이다. 이렇게 階級的으로 그리고 협의의 개념에 의거 民族을 區分한다는 것은 民族의 異質化만을 促進시켜 分斷을 더욱 固定化시킬 뿐이다. 그러한 區分은 共產圈內에서의 金日成의 위치를 强化시켜주지도 못하며, 對內的으로 길게 볼 때, 反民族的이라는 인상만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萬一 金日성이 포괄적이고 巨視的인 民族觀을 主張한다면 北韓住民들을 統治하기가 보다 容易할 것이며, 그렇다고 共產圈內에서 그의 위치가 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金日成은 그가 國際共產主義運動과 韓民族의 利益에 모두 充實한 指導者로 自處하려 들기 때문에 二重으로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國際的으로는 金日성이 무슨 努力を 해도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한 사람이고 그의 主體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새 時代의 思想이라고 認定해 줄 共產國家는 없을 것이고, 對內的으로는 民族을 人爲的으로 區分하여 統合을 저해하고 敵對感을 造成시키는 主體思想이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批判을 받게 될 것이다. 中共의 統一戰線概念에는 小부르죠아와 民族부르죠아가 包含되어 있는데 北韓의 경우 民族부르죠아를 敵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때, 主體思想이라는 것이 말로만 主體이지 硬直된

共產主義思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主體思想이 사람中心의 새로운 獨創的 思想이라는 것도 再考할 여지가 있다. 人類歷史를 움직여 온 것은 사람이고, 이 點은 마르크스나 앵겔스도 認定하는 바이다. 마르크스가 世界를 解釋하는 데 滿足하지 않고 變革에 關心을 集中시켰던 것도 人間爲主를 意味하는 것이며, 일찌기 地球上의 發見이라든지 資本主義發達史를 檢討해 보아도 사람이 世界와 自己運命의 主人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勞動者를 中心으로 하는 勤勞大衆만의 自主·創造的 役割과 思想意識을 強調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다른 階級에 屬한다는 判定을 받는다면 그들은 自主性이나 創造性도 없고 意識도 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엄청난 獨創과 오류를 犯하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自己運命의 主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로대중이며 이들은 黨과 首領의 指導를 必要로 한다는 것이고 보면 結局 北韓의 主人으로 自主性, 創造性 및 思想意識이 투철한 것은 金日成이라는 人物에게로 歸着되고 마는 것이다. 東·西洋 古今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存在해 왔던 人間爲主의 人本思想을 새로운 思想의 創案이라고 내세우는 北韓의 主張은 分明히 挑戰을 받기 마련이며, 人本思想을 마르크스-레닌의 唯物思想과 연관시키느라 ‘사람이 가장 發達된 物質的 存在’라고 主張하는 것도 理論的으로 박약하다.

끝으로, 主體思想을 構成하는 指導的 原則들인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의 諸原則을 強調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理論化에 무리가 많아 體系的인 理論으로 主張하기 힘들고, 北韓의 地政學的 與件으로 보아 自主路線에 限界가 있으며, 國際化時代에 잘맞는 原則도 아니라는 것이 지적된다. 더 오랜 共產主義經驗을 지닌 소련이나 中共과 같은 國家들도 對外的인 協力이나 交流를 通해 發展을 摸索하고 있음을 보듯이, 北韓도 언젠가는 그러한 前例를 따르게 될 것이다. 現時代의 複雜한 相互依存關係를 北韓이 얼마동안이나 外面할 것인가도 의문이며, 排他的이고 폐쇄적인 自主路線이 果然 住民들에게 幸福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點도 회의적이다. 北韓, 루마니아, 알바니아의 경우 모두가 對外的으로 自主를 부르짖으나 對內的으로는 全體主義의 獨裁體制를 강화하고 個人崇拜를 強調하여 政治發展이라는 側面에서 보아 退步라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政治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主體思想이 政治發展을 沮害하고 個人的 權力만을 強化하는 데

利用되고 만다면 설사 主體思想이 理論的으로 완벽하다고 가정해도 統治이
데올로기로서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檢討·分析한 것을 整理하여 보면 몇 가지 事項들이 보다 明確해
진다. 우선 主體思想의 出現背景은, 抗日鬪爭期間에 創案된 것이 아니라 北
韓이 處해 왔던 國內外的 狀況과 體制의 運用과정에서 形成되고 發展되어 온
實用的인 統治이데올로기라는 點이 檢討를 通해 알려졌다. 둘째, 主體思想
의 機能이 多樣하다는 點이다. 對外的으로는 中·蘇와의 關係와 對南心理戰
및 第3世界에의 接近에 利用할 수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金日成에 挑戰하
는 勢力들을 去勢하고 金日成에 忠誠하도록 住民들을 教化시키며 生產活動
에 끊임없이 動員시키는 諸機能을 수행한다. 셋째, 主體思想이 強調하는 것
이 결국은 黨과 首領의 重要性이라는 點이다. 근로大衆을 指導한다는 名目
으로 金日成 個人의 位置를 絶對的으로 確固히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點이
다. 넷째, 사람이 中心이고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人本思想은 세롭고 獨創的
인 思想이 아니고 마르크스, 헤닌, 毛澤東 等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東西
洋 모두에서 쉽게 發見할 수 있는 傳統思想이라는 點이다. 다섯째, 主體思想이 풍기는 强한 民族的인 色彩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主體思想이 民族
共產主義임을 否認하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主張하
고 있다는 點이다. 이 點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관한 解明도 박약하고
民族主義에 關한 立場을 납득시킬 만큼 說得力を 지니고 있지도 않다. 끝으
로, 主體思想은 마르크스-페닌主義와 마찬가지로 辨證法의 唯物論의 立場
임을 主張하면서 他一面으로는 새 時代(主體時代)에 맞는 ‘사람이 主人이
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人本思想의 立場을 同時에 取함으로써, 두 개의
相互矛盾의in 思想을 包容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개의 相反되는 哲學
의 原理에 基礎를 두면서도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創造的
의 立場임을 主張하면서 마르크스가 解決하지 못한 새 時代의 要求들을 人間中
心의 主體思想으로 解決할 수 있게 되었다고 宣傳하기도 한다. 主體思想은
體系가 잘 짜여 있지도 않으며 洗練되어 있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主體思想
이란 理論的으로 定立되어 있지도 않고, 政策이나 指針 等을 무리하게 理論
화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理論的인 脆弱點을 지녔다 하더라도 北韓과 같이 金日成이 住民
들을 完全히 支配하는 閉鎖社會에서는 主體思想에 對한 批判이 그의 生存期

間 露出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植民地經驗을 가졌거나 經濟的 自立이 어려운 第3世界國家들 가운데서 主體思想에 期待를 갖게 되는 集團이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一般的으로 政治·經濟水準이나 文化水準이 높은 나라에서는 主體思想이 침투하기란 容易치 않다. 蘇聯과 中共에서 조차도 主體思想은 外面을 받고 있다. 中·蘇는 그들의 經驗이나 理論들을 適用하고는 獨創의 理論인 양 主張하는 北韓指導層이 미울 것이지만, 中·蘇紛爭으로 因해 北韓의 感情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 兩國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中·蘇는 스탈린格下運動과 毛澤東에 對한 批判을 이미 經驗한 國家들이기 때문에, 金日成 死後에 展開된 事態를豫見하고 있을 것이다.豫見되는 事態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그의 아들인 金正日을 미리 選定하여 뒷일을 담당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成功與否는 未知數이다. 結果가 어떻게 나타나든 關係없이, 權力承繼라는 東洋의 傳統의in 政治現象이 마르크스-레닌主義原則으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離脫하였는가 하는 點은 疑問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에 對한 外部의 評價도 否定의 이 되고 마는 것이다. 自己나 自己家族만의 利益을 追求하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充實하며 새 時代의 要求에 맞는 勤勞大衆의 主體思想을 創案했다고 金日성이 아무리 主張해 보았자, 조소를 사기에 足할 뿐이다. 더 우기, 마르크스가 解決하지 못한 問題들에 명쾌한 解答을 주었다고 主張함으로써 흡사 마르크스와 金日성이 同格이나 되듯 宣傳하는 것을 他共產國家들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金日성이 政權慾이 强하고 排他的이며 폐쇄적인 人間이며, 主體思想은 그의 立場을 強化시켜주기 위한 道具가 되는 統治이데올로기에 不過하다고 評價할 것으로 思料된다. 主體思想에 對한 本格의in 批判과 客觀의in 評價는 金日成死後에 나타나겠지만, 主體思想이 金日成의 權力維持를 為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크게 變形시켰다는 것은 이미 疑心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 『國際問題』(日本)
 1967 제88호(1967. 7)
 國問題調查研究所
 1982 『國際情報資料』제259호(1982. 9),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 1974 『哲學講座：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서울。
- 1980 『北韓全書，1945～1980』，서울。
- 『근로자』
- 1964 8月號， 근로자사， 평양。
- 1972 10月號， 근로자사， 평양。
- 金甲喆
- 1977 『北韓 政治이데올로기의 分析：主體思想을 中心으로』，書香閣， 서울。
金南植
- 1977 「北韓의 社會體制와 이데올로기의 变遷」，『北韓社會論』，北韓研究所， 서울。
金南植・趙愛淑
- 1982 「北韓의 對非同盟 第7次頂上會談 戰略戰術分析」，『政策研究』(1982. 8).
金日成
- 1968 「國家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自主，自位，自衛의 革命精神을 더욱 철저히 具現하
자」，『조선중앙년간 1967～1968』，평양。
- 『金日成著作選集 4』。
- 金正日
- 1982a 『主體思想에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평양。
- 1982b 「勞動黨은 ‘主体’傳統을 繼承한 主體型의 革命的 黨이다」，『로동신문』(10. 18).
內外通信
- 1982 10月 29日 資料版，서울。
- 『東亞日報』
- 1967 2月 21, 23, 27日字，東亞日報社，서울。
- 『로동신문』
- 1955 12月 18日字，평양.
- 1972 1月 15月字，평양.
- 1980 10月 11日字，평양.
- 1980 10月 14日字，평양.
- 反共問題研究所
- 1968 『北韓總鑑，1945～1968』，서울.
- 北韓研究所
- 1977 『北韓社會論』，서울。
- 1978 『北韓外交論』，서울。
- 1979 『北韓政治論』，서울。
- 1983 『北韓총람』，서울。
- 梁好民
- 1979 「主體思想과 政治文化」，『北韓政治論』，北韓研究所，서울。
『人民日報』
- 1982 「中國共產黨章程」(9. 9)，北京。
- 黃性模
- 1980 「反歷史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北韓』12月號。

- Cho, Soon-Sung
1968 "Korea: Election Year," in *Asian Survey*, Vol. VIII, No. 1.
- Fan, K.H.
1968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Selected Documents*, Grove Press, New York.
- Gittings, Gohn
1968 *Surveys of the Sino-Soviet Dispute*,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Hampsch, George H.
1965 *The Theory of Communism*, The Citadel Press, New York.
- Kim, Il-Sung
1977a "On Eliminating Dogmatism and Formalism and Establishing Juche in Ideological Work," in *On Juche in Our Revolution*, Faculty Press, New York.
1977b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s of Our Party," in *On Juche in Our Revolution*.
1977c "To Bring about a Great Revolutionary Upswing in Socialist Construction," in *On Juche in Our Revolution*.
- Lowenthal, Richard
1964 *World Communism: The Disintegration of a Secular Fai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arx, Karl
1964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 New York Times*
1967 February 21.
- Pye, Lucian W.
1978 *China: An Introduction*, 2nd ed., Little, Brown and Co., Boston.
- Rossingnol, Le and James Edward
1968 *Backgrounds to Communist Thought: From Marx to Stalin*, Thomas Y. Cromwell Co., New York.
- Schurman, Franz
1968 *Id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1972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Townsand, James R.
1974 *Politics in China*, Little, Brown and Co., Boston.